



백제역사지구 공주 송산리 고분군 훼손 '심각'

무령왕릉, 송산리 5호분 6호분 곳곳 결로현상 열화현상

문화재청 부실 조사 의혹도... "세계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체계 필요"

우리나라에서 12번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인 공주 송산리 고분군 무덤 곳곳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내부 바닥재와 벽재 및 마감재가 금이 가고 강도가 현저히 약해지는 열화 현상이 보이며 재양 수준으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송산리 고분군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백제역사유적지구 내 문화재들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의 관리 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백제역사유적지구 송산리 고분군을 이루는 무령왕릉, 송산리 5호분, 송산리 6호분 내부가 금이 가고 강도가 약해진 열화현상을 보이고 있고 결로현상이 일어나는 등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송산리 고분군 중 무령왕

릉은 내부의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해 전돌(특히 바닥재)과 석회물탈이 열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분군 중 송산리 5호분도 내부의 환경조건이 매우 열악해 석회물탈이 열화되며 훼손되고 있다. 송산리 6호분 역시 전돌과 벽화 바탕칠의 석회물탈이 열화되면서 훼손되고 있다.

무령왕릉을 비롯한 송산리 고분군이 심각한 훼손 상태에 이르렀는데 문화재청에 실시한 2012년 정기조사에서는 이들 문화재들의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고돼

부실 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문화재청의 2012년 정기조사에서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전반적인 정비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4년 특별점검에선 훼손 정도가 재양 수준의 심각한 것으로 조사돼 긴급 보수해야 할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문화재청의 조사대로라면 2년 전에는 멀쩡했던 문화재가 2년 후에는 심각하게 훼손된 셈이다.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 중 훼손되고, 제대로 관리 못 받고, 부실 점검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은 공주 송산리 고분군 뿐만이 아니다.

공주 공산성도 2012년 정기조사에서 '전반적인 정비 상태가 양호함'이라고 보고되고 있는데 1년 만인 2013년 9월 공산성 성벽이 붕괴되었고 2014년 특별점검에선 '기초 불안정, 연약지반, 배부름 현상, 돌출, 이격, 부분 침하 등 구조적 불안정'이 지적되며 긴급 정비해야 할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도 부여 부소산성은 2012년 정기조사에서 지적된 소화전 및 감시시설 설치, 흉물 상업시설 정비 등의 요구사항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채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받았다.

정진후 의원은 "세계문화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재들이 재양 수준으로 훼손되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문화재 관리의 허점을 또 다시 드러낸 것"이며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7월 4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공산성, 공주 송산리고분군, 부여 관북리유적 및 부소산성, 부여 능산리고분군, 부여 정림사지, 부여 나성, 익산 왕궁리 유적, 익산 미륵사지 등 8개 유적으로 구성돼 있다.



2015년 제2차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개최 충청권 4개 교육청 교육감은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만나 '충청권 미래교육 국제포럼' 개최에 합의하고, 충청권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투자유치 '중국행'

베이징 등 방문, 부동산기업 · 국영여행사 CEO 만나기로

지난달 9000억 원에 달하는 중국 자본 유치가 성공한 안희정 충남도 지사가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해 불과 1개월여 만에 또 다시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안 지사는 18~20일 주말을 켜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선전을 방문, 중국 부동산 대기업과 국영여행사 최고경영자(CEO)를 잇따라 만난다.

출국 당일인 18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부동산 대기업인 A그룹 CEO와 국영 B여행사 고위 관계자를 만나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하고 중국인 관광객 도내 확대 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A그룹은 중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지난 7월 안 지사가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때를 비롯해 이미 여러 차례 만나 투자 상담을 가진 바 있다.

지난 1980년 설립된 B여행사는 중국 관광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주

식이 상장된 국영 기업으로, 지난 2013년 기준 매출액이 1조 5000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안 지사는 A그룹 CEO와 B여행사 고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충남의 경제 환경과 서해를 21세기 아시아의 지중해로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충남의 높은 미래 투자 가치를 설명할 계획이다.

또 세계유산에 오른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충남만의 색다른 독특한 문화, 안면도 등 경제적이고 매력적인 관광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중국 개혁개방 '1번지'로 불리는 선전시로 이동, 선전 부동산 10대 기업이자, 중국 주택 100대 기업인 C그룹 CEO를 만나 충남의 투자여건을 설명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한·중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를 갖는다.

안 지사는 20일 오전 귀국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안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7월 '1박 2일 세일즈 외교'와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 CEO들에게 충남의 경제 여건을 설명하며, 투자 유치를 타진하는 실무적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 지사는 지난 2월 직원 만남의 날 행사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중국 해외 개발·투자 중요 회사를 지속적으로 만나겠다"는 '중국 구상'을 밝힌 뒤, 2·3월과 7·8월 잇따라 중국을 방문했다.

특히 지난달 13일에는 중국 선전에서 CGN 메이아 파워 홀딩스 컴퍼니(CGN Meiya Power Holdings Company)와 9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중국 투자유치에 공을 들여오던 중 거둔 이번 성과는 도정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2010년 12월 이후 4년 7개월여 만에 거둔 최고 성적표다.

안 지사는 또 같은 달 19일 도청에서 중국 북해그룹과 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 중단 요청

전국 시도교육감 "사회적 갈등 증폭 우려...충분한 논의 필요"

최고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감이 일방적이고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2015 개정교육과정' 고시 중단을 요청했다.

대구, 울산, 경북 세 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7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초·중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현상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중단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더욱이 이번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의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적 발상이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등 중요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각각 꼬집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정부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의 백년지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논의가기에 적극 참여할 의사도 밝혔다.

김정환 기자



국립경주시립박물관
www.kjml.or.kr

제정군 문화축제

2015.10.2(금)~10.6(화)
충남 경주시 일원

군문화의 대향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달서맞

10월 2일(토) 10시~14시

올한해

10월 3일(일) 10시~14시

백일호

10월 7일(목) 10시~14시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 찬성”

[리얼미터] 모든 지역-계층 찬성 의견 우세... 충청권 주민 76.3%

대다수의 국민들은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정부가 가정 보육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정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전업주부는 2살 이하의 자녀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낼 수 없는 대신 아이를 가정에서 키울 때 지급하는 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인상하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제한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61.9%로, 반대하는 의견(24.7%)보다 2.5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3.4%.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전업주부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먼저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세종(찬성 76.3% vs 반대 11.6%)에서 찬성 의견이 70%를 넘었고, 이어 광주·전라(63.2% vs 18.0%), 서울(60.9% vs 26.4%), 부산·경남·울산(58.9% vs 34.2%), 경기·인천(58.6% vs 27.2%), 대구·경북(56.1% vs 23.4%)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50대(찬성 67.6% vs 반대 15.2%)에서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64.7% vs 15.4%), 20대(64.7% vs 28.7%), 30대(60.4% vs 28.8%), 40대(52.5% vs

36.3%) 순으로 이용 제한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찬성 69.5% vs 반대 11.5%)가 70%에 근접하는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이어 노동직(68.6% vs 19.9%), 학생(63.9% vs 29.1%), 자영업(61.7% vs 23.9%), 사무직(51.9% vs 36.8%)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찬성 71.7% vs 반대 13.0%)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이어 무당층(59.4% vs 25.2%),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59.1% vs 29.0%) 순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별로는, 보

수층(찬성 69.2% vs 반대 17.4%), 진보층(60.8% vs 31.8%), 중도층(58.2% vs 31.3%) 순으로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제한을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우선전화(5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4.4%p. 김정환기자



대전서구의회 제7대 초선의정연구회 초청강연회 대전서구의회(의장 박양주) 제7대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초선의정연구회’는 17일 서구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건양대학교 이진경 교수를 초빙하여 ‘다문화 사회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과 과제’의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 열띤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다문화 가정이 존립하고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인 현재, 약 18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사회는 성숙한 포용과 서로 다른 문화적 이해를 높이고 그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임을 일깨워 주고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 재정립이 절실하다.’라는 초점을 두었다.

한국도로공사 부채 26조원 · 하루이자만 31억원

박수현 의원 “부채감축 계획 ‘눈속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경영효율화 명목 아래 안전마저 위협... 유지관리비 · 시설개량비 삭감



대비 5.9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채감축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기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제 살 깎기’라는 지적이다. 건설사업 조정은 이미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건설 투자의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이고, 휴게시설 운영권과 유류부지 매각 등의 핵심 자산 매각은 결국 도로공사의 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것이다.

속도로 보수공사, 안전관리, 청소 등으로 발생한 인명사고는 총 212건으로 사망 79명, 부상 186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59건(사망 21명, 부상 64명), 2011년 43건(사망 18명, 부상 36명), 2012년 48건(사망 14명, 부상 41명), 2013년 22건(사망 9명, 부상 16명), 2014년 25건(사망 12명, 부상 19명)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15건(사망 5명, 부상 10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안전관리 소홀이 심각했다.

박근혜정부의 부채 감축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의 부채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는 2014년 기준으로 2013년 25조8,617억원에서 6,005억원이 증가한 26조4,622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채 중 금융융자 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94.6%로 25조449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1조1,251억원, 하루 31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감축을 위해 투자규모 조정, 고속도로 운영비 절감, 휴게시설 운영권 등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2017년 전방 36.1조원

실제 한국도로공사는 2014년 2조5,416억원의 부채감축을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부채감축액의 58%에 해당하는 1조4,838억원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투자조성과 추가 투자 배제 등의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부채 감축이다. 경영효율화로 인한 감축액은 7,954억원(31.2%)인데 유지관리비와 시설개량비 절감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반면 서비스 마케팅을 통한 통행료 수입확대와 휴게시설 임대료 등 부대사업 수입 증대를 통한 부채 감축액은 1,861억원 7.3%에 그쳤다. 또한 경영효율화 명목 아래 이뤄지고 있는 안전관리 비용 삭감과 유지화 확대 등은 매년 증가하는 관리연장과 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하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2010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고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천편일률적이고 강압적인 부채감축 요구가 고속도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며 “전문학적 인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매년 줄지 않고 있는 각종 교통사고, 외주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의 비리와 불안한 고용문제 등부터 해결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 의원은 “도공의 부채 감축 계획은 마땅히 써야 할 돈을 잠시 늦추는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도공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한 채 부채 감축에만 혈안이 되어 적기에 투자해야 할 곳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주=정성범기자

민병주의원 “정년단축에 임금 피크제까지 무너지는 출연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구(이하 출연연) 연구원들은 IMF 당시 국민과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연구기관별로 65세에서 61세로 정년을 단축한데 이어,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자 연구현장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 국정감사에서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 당협위원장 · 사진)은 출연연의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 의원은 IMF 당시 정년단축으로 출연연 연구원들이 보상받지 못한 임금손실분과 연구 기회를 추정 한 결과, 지난 17년동안 616명의 연구자가 2,252억원(1인당 약 3억 6천만원), 연간 132억원의 혜택을 국가에 반납했고, 평생 연구의 마무리를 할 수 4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차관에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의 예산이 약 2조인 점을 감안하면, 0.6%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과연 출연연 전체 예산의 0.6%에 대한만 국 과학기술계의 연구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야 하겠다”고 따져 물었다. 또 최근 기재부가 제시한 임금피크제 권고안인 “정년 2년 전 10%, 1년 전 15% 삭감”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하면서, 개인별로 정년 전 2년 동안 2,370만원(연간 1,185만원)이 삭감되고, 출연연 전체로 보면 2016~2018년까지 48억(137억), 57억(196억), 69억(205억)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연구회 산하 출연연 출연금 대비 0.24~0.34%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편, 민 의원은 노벨상 수상자 연봉 통계를 소개하면서, 60세 이상이 전체의 70%, 70대 이상도 약 36%나 됐다. 우리나라처럼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을 61세로 정하는 것은 연구성과 창출면에서 볼 때,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정년연장 또는 정년환원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출연연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기타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 반드시 법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정복기자

박병석 의원 “노인 소비자 피해 급증 구제 대책 세워야”

2013년 1,996건에서 2014년 2,342건으로 17% 증가



박병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전서갑 4선 · 사진)은 17일 “노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2013년 1,996건에서 2014년 2,342건으로 17%나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시장 정보에 취약한 노인 피해자 예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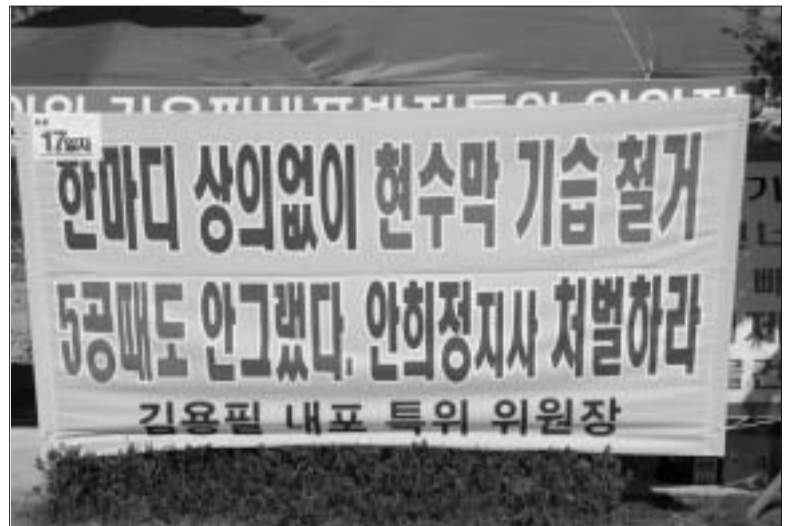
한국소비자원 국정감사에서 “노인 소비자 피해 현황 중 의료서비스의 품질 · AS관련 구제는 전년 동월 대비 161건에서 187건으로 16% 증가했고, 지난 5년간 전체 부당행위 피해구제 중 보험관련이 36%를 차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이는 특히 건강 분야에 관심이 많은 노인소비자층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노인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실태 모니터링, 피해에

방주의보 발령, 전화사기 피해에 방캠페인 등을 추진해왔지만 최근까지의 노인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봤을 때 그 실효성이 확보하지 못한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노인소비자 이동상담 및 교육 확대 보편, 의료와 같은 특정 분야의 피해 예방 대책 수립 등 변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노인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복기자

예산군 사회단체 ‘뿔’ 났다

18개 단체 총남도청 찾아 ‘현수막 내놔라’ 항의

도 총무과장 나도 내포 주민이다 ‘맞 대응’ 논란



예산권역의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며 17일째 천막농성 중에 있는 김용필 내포특위 위원장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났다. 지난 14일 현수막을 댄 것으로 지목된 도 총무과장에게 17일 예산

지 침범한 사유에 대해 안지사의 거시기라도 돼서 충성심에 물불을 가리지 못하니며 총무과장을 향해 팻대를 올렸다. 이에 도 총무과장은 나도 내포 주민이다. 내포에서 기거를 하고 있으며 세금도 내포에 내고 있다는 어불성설의 주장을 퍼 붙날을 악화시켰다. 이날 예산군 시민단체들은 현수막이 정상적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다음 주 예산군 모든 단체들이 총 쫓기할 것을 시사하고 있어 총남도와 예산군 사회단체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총남도와 예산군 사회단체와의 힘겨루기가 장기화 될 경우 예산군민들까지 가세할 여지가 있어 도 행정의 그릇된 판단이 일파 만파로 번질 수 있다는 중론이다. 한편 현재 총남도청 앞 예산권역 천막에서 숙식을 하며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용필 내포특위 위원장에게 대한 상반되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어 향후 김위원장의 매듭 풀기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내포=이지용기자

대법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촉진조례안’ 합법

천안시의회 조강석의원 “원도심상권 활성화정책 2년간 늦어져 아쉬움”



간의 과정을 설명하며 환영했다. 조강석 의원은 이어 “2년전에 발의한 조례안은, 원도심 활성화를 목적으로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성무용 전 시장재임시에, 천안시가 지원근거도 없고 법령의 위임근거도 없이 제정된 조례라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를 제기해 2년이나 지원정책이 지체됐다”며 지체 배경과 아쉬움을 토로했다. 조 의원은 또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명에까지 써먹어 해당 조례 제정에 의의의 눈초리를 받아왔지만 최근 대법원이 천안시의회 의 손을 들어줬다”며 “앞으로 관련조례를 재검토하고 타지역의 조례와 비교하여 현 실정에 부합하게 제정, 원도심 활성화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원도심 살리기 정책실현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시의 조례 주요내용인 문화예술 관련 임대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사무이며,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삼고 있지 않아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며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등에 대한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조례안의 규정으로 일부 주민이 지원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합법 근거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또 “지방상권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전통시장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며 천안시의회 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각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의원의 취지로 보인다. 김정환기자

안필응 의원, 전국 최초 ‘청년 일자리 사회적 펀드’ 조성 앞장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 · 교육감 등 공무원들의 ‘청년 일자리 펀드’ 가입 권유

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은 18일 개최되는 대전시의회 제22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각한 대전 청년실업률 해소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펀드’를 조성하자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의 결의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동개혁’이 곧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하면서, ‘청년고용을 위한 사회적펀드’를 조성하고, 1호 기부자로 참여

하겠다는 발표에 기인한 것이다. 안필응 의원은 대전의 청년실업률이 10.1%를 넘어가고, 고용률도 60.3%에 머물고 있어 청년실업률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앞장 서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만큼, 대전이 전국 최초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펀드’를 조성하여 타자치단체 보다 선제적으로 앞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펀드가 조성된다면 대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 청년 기업에 투자하고, 직업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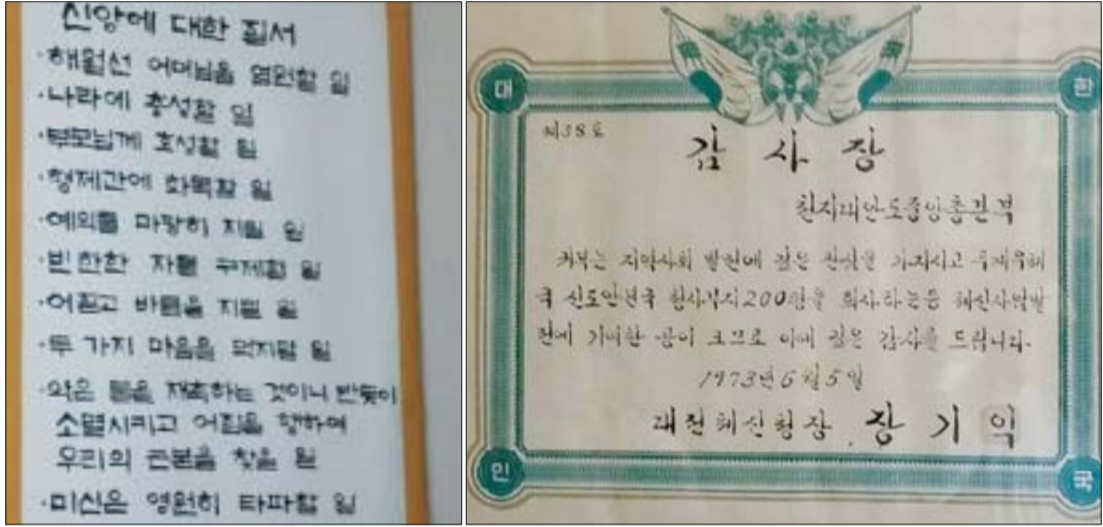
을 지원하는데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안의원은 우선적으로 선출직 공무원들인 시장과 교육감, 의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펀드에 자발적 기부자로 가입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 이런 실천들이 대전시 전체로 확산되어 어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심각한 대전의 청년일자리 문제를 ‘대전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전국에서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는 대전을 만들자고 주장하였다. 김정환기자



계운전 전파, 무속신앙 '신흥종교'로 자리매김

김태순 천지대안도 교주

계운전 전파를 이어받은 새로운 신도시, 신도안지락에 자리 잡은 무속신앙이자 민속신앙인 천지대안도 2대 교주인 김태순 교주를 만나서 예언서이자 경전인 계운전의 교리와 70년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의 종교철학을 간략히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19세에 입교, 70년 신앙생활동안 생식·냉수로 목욕

▲천지대안도는 어떤 종교이며 2대 교주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입문하신 동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지대안도(天地大안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천신님의 영을 관통하고 천신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도를 닦으며 생식과 냉수로서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육체를 보호하며 매일이천 찬물로 목욕 재개한 후에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종교로 초대 교주이신 해월선(부경순)님의 교리를 받들어 널리 전도하는 곳입니다.

천지대안도에 입교하게 된 동기는 해월선님의 끈질긴 구애, 즉 3고초려로 입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다가 19세의 나이로 1대 교주인 해월선 교주님을 만나서 천지대안도에 입도 하였고 70여년간 기도와 설법으로 지금의 천지대안도를 지키고 신도들에게 계운전을 전파하며 무속신앙을 신흥종교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천지대안도의 도경인 계운전의 주된 내용과 집필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천지대안도의 도경인 계운전은 1대 교주이시며 창시자인 해월선님의 말씀을 제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김봉호 박사가 틈틈이 기록하여 보관하다가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교리를 전파하고 널리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필하여 천지대안도의 도경(성경이나 경전으로 의하고자 저술한 것)입니다.

예언서이자, 도경인 계운전에는 10계명인 신앙

에 대한 질서의 기본 지침으로 첫째 천지어머니를 영원할 일, 둘째 나라에 충성할 일, 셋째 부모님께 효성할 일, 넷째 형제간에 화목할 일, 다섯째 예의를 마땅히 지키 일, 여섯째 빈한한자를 구제할 일, 일곱째 어질고 바름을 지킬 일, 여덟째 두가지 마음을 먹지말일, 아홉째 악은 불을 재촉하는 것이니 반드시 소멸시키고 어질함을 행하여 우리근분을 찾을 일, 열 번째 미신을 영원히 타파할 일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기본 도리를 생활의 신조로 삼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전은 1961년에 김태순 2대교주가 초대 교주인 해월선(부경순님과 자신의 토설을 정리하여 펴낸 '계운전(啓運典)'이다.

▲제주도 4.3사태당시에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구하는 호국기도를 위해 100일간의 단식을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주 4·3 사건(濟州四三事件)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표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해야한다는 취지에서 해월선님의 의중과 수양의 입념으로 호국기도를 위해서 100일간의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6.25까지 발발하여 제주도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100일간의 단식에 들어



가자 신도 70명중에 25명을 선발하여 매일 50명의 신도가 번갈아가면서 단식에 동조하며 철야기도와 함께 나의 건강상태를 지켰습니다. 혹여 실신이라도 할까봐 걱정을 하였고 단식 7일째에는 미국에서 한 병원원장이 방문하여 혈액순환이나 알콜색 등 지금으로 말하면 정확한 건강검진을 하였는데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28세의 가을에 시작한

단식이 29제인 정월에 100일간의 생식을 건 단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오로지 나라를 구하고 사람을 구하자는 구국의 입념과 교리의 실천이자 정신력이었습니다.

▲연세가 89세로 연로하신데 지금은 종교생활을 어떻게 하며 지내시는지요?

불이 닿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으며 1년이면 100일 또는 200일간 생식을 하며 찬 물을 마시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재계 한 후에 기도도 하루를 시작하여 기도로서 하루일과를 종료합니다.

천지대안도의 신도안시대는 계룡산이아말로 세계의 중심이며 천지인(天地人) 삼합운수(三合運數)와 삼재운수(三災運數)가 열리는 새 땅이라고 주장, 그리고 이곳에 새천지 개벽운수를 개척하여 만대 후손에게 감로의 혜택을 받는 새 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예언, 3군본부가 계룡시에 자리를 잡았고 행정수도 후보지로 오르기도 한 지역이다.

초대 교주인 부경순의 신앙이 신도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정과 추앙을 받게 되고, 또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독자적으로 1952년 병을 치료하던 손님 50여 명을 모아 부산 남항동 자기집에서 천지대안도를 창립하였다.

1965년 초대 교주인 부경순이 사망하자 지금의 교주인 김태순(金泰順) 총재가 대를 이어 교를 이끌다가, 계룡시 두마면 염사리로 이전하여 본당인 중앙총본부를 신축,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에 24개의 교당(제주도에 18개)을 갖고 있으며, 일본 오사카(大阪)에도 2개의 교당이 있다. 한 때는 신도가 3,000여 명에 달했으며 신도들은 대개 제주도에 많으며 충청 지역에 소수의 신도들이 있다.

신앙의 대상은 해월선으로, 해월선은 바로 옥황상제(玉皇上帝)이며 미륵세존(彌勒世尊)으로서 신천지 오만년 운도(新天地五萬年運度)를 만들었고, 신천지를 개벽한 개벽주이며 미래불용화주(未來佛龍華主)라고 한다. 또한 해월선은 용왕신(龍王神)으로도 받아들여진다.

여기서는 찬물만 먹고 단식하며, 축문·기도문을 외우면 병도 낫고 정신수련도 된다고 가르친다. 매일 새벽 정기대제를 지내며, 매월 5일·15일·25일과 연세 차례의 대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개벽을 통한 세계 구원의 때가 오는데, 한국이 중심지가 된다. 새 시대에는 물의 원리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며 여자가 주도권을 잡아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 신자들은 매년 한 차례씩 백일생식기도를 올리며, 때로는 찬물만 먹으면서 단식기도를 한다. 특히 신병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한다.

▲지역발전을 위해 기부채납과 재단법인으로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듯.

지난 1973년도에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우체국이 너무 작고 낡아서 두계우체국 신도안분국 청사 부지 200평을 회사하는 등 체신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감사장을 받았다. 또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사회 운영체제로 전환 하는 등 앞으로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봉사과 사랑은 모르게 하는 것이라며 겸손하게 웃음으로 대신했다.

김태선 기자

● 동 정 ●●●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설호호 대전시 교육감= 18일 오전 10시 대전광역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참석.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인식 대전시 의회의장은 18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참석.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보고회



박용갑 중구청장= 18일 오후 1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준비상황보고회' 참석.

노인종합체육대회



장중대 서구청장= 18일 오전 10시 30분 '제17회 대한 노인회주간 노인종합체육대회' 참석.

제5회 관평골축제



허태정 유성구청장= 18일 오전 9시 30분 구암평생학습센터에서 열리는 다문화 고국방문 항공권 전달식 참석, 오후 6시 관평동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제5회 관평골축제 참석.

제7회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전

유성구 '우수상' 수상 영예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17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린 제7회 방과후학교대상 공모전 시상식에서 지역사회 파트너십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행복한 방과후학교' 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분야는 ▲교사·강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분야로 나눠 시상했으며, 유성구는 3개 분야를 통틀어 대전권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성구는 행복 소통스쿨 '있다'라는 주제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학교로 간 평생학습 소통스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놀이, 전통놀이 체험 등으로 구성된 지역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 개발을 지원한다.

구는 이번 수상과 더불어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교육기부&방과후학교 박람회'에 초청되어 우수사례를 홍보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발달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세계과학정상회의 D-30 준비 마무리 본격화

57개국 12개 국제기구 참석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 개최 D-30일을 맞아 세계적인 저명한 인사들을 연사로 섭외하는 등 행사 준비 마무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 세계 과학 정상회의(10.19-23)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세계과학기술포럼'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로 구성되며, 각국 장관·차관과 세계적인 석학들이 함께 모여 향후 10년간의 세계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계비용 제로' 저자로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

세계과학기술포럼 기조연사로, '핀란드의 케네디'로 불리는 에스 코 아호 전 핀란드 총리가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의 기조연사로 참가하는 등 70여명의 세계적 저명한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의 주요 행사인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57개국 12개 국제기구가 초청되며, OECD 및 ASEAN 회원국 장관, 국제기구 수장 등 총 46명(9.16 기준)이 참석을 확정했다.

미래부는 이번 행사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세계과학정상회의 누리집(홈페이지 : www.daejeon-

oecd2015.org/kr)를 개설하고 걸그룹 투애니원(TN1)의 씨엘과 부친 이기진 교수(서강대학교 물리학과)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롯데시티호텔대전에서 18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초청대상국 주한 외교관들 대상의 설명회를 개최, 회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 대표단의 참석을 지원해준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충남대학교병원 및 DCC 인근 5개 주요 호텔(롯데시티호텔대전, 유성호텔, 호텔리베라유성, 호텔인터시티, 호텔ICC) 대표들에게 공식의료기관 및 공식숙박업소 지정서 수여식도 진행된다.

공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충남대학교병원원은 회의기간 DCC 현장에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며, 공식숙박업소로 지정된 5개 호텔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한 숙소 제공에 협력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은 "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 마무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영호 기자

'중앙로 차 없는 거리' 다채로운 행사 준비

동구, 옛 충남도청 대전역 1.1Km 구간서 19일 선보여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은 19일, 옛 충남도청 대전역 1.1Km 구간에서 개최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구에 따르면 대전시를 포함한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 두 달 간 야심차게 준비해 온 이번 행사에 동구만의 특색 있고 주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민들에게 즐거움을 가득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구는 대전역~목척교 300미터 '만남의 거리' 구간에 ▲중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 ▲난타, 워킹댄스, 밸리댄스, 풍물공연 등 10여 개 공연을 개최하여 차 없는 중앙로를 찾는 시민들과 즐거운 한마당을 연출한다.

오후 3시부터는 주민화합을 위한 보훈청 주관 '호국평화통일 대행진'이 펼쳐지며, 씨이카, 의장·군악대, 참전국가 기수단, 시낭송도와 기마대 등 학생·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직장인 밴드·비보이·장기연 난타 공연 및 추석명

절을 맞아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과 부대행사로 민화전시, 우드아트 체험, 구정 홍보 사진전도 열린다.

구 관계자는 "시민 화합도모를 위한 차 없는 거리행사에 주민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중앙로를 함께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눈과 귀로 느끼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중앙로 차 없는 거리'는 흑한기(1.2월)와 흑서기(7.8월)를 제외한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영호 기자

드래곤보트 페스티벌

대전시는 '2015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이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갈천수상스포츠 체임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대전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드래곤보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직장부 20개 팀, 학생부 30개 팀, 일반부 30개 팀, 전국부 30개 팀, 총 110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열리는 드래곤보트 대회 중 가장 많은 참가규모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4월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드래곤보트 아카데미에 참여한 선수 동호 클럽 등으로, 경기는 드래곤보트에 12명 이 승선하고, 300m 거리를 질주하며, 먼저 들어오는 팀이 승리하게 된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은 첫째 2013년도에 90개 팀, 2014년도에는 98개 팀이 참여하였고,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팀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의 참가팀 증가는 호수와 바다가 없는 대전의 여건을 감안, 2012년 조성된 갈천수상스포츠체임장에 1일 평균 300여명 주말 평균 500여명의 이용객이 찾아, 수상스포츠가 대전 시민들의 새로운 이색 체험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회 첫날은 학생부와 전국부 경기가 열리고 둘째날은 일반부와 직장부가 참가 소속 기관·단체와 학교의 명예를 걸고 자웅을 겨루게 된다.

대회 둘째 날 14시경 열리는 최종 결승전은 대학부 1·2위 일반부 1·2위 직장부 1·2위 총 6개 팀의 경기로 치루어지며 2013년에는 시립관리공단팀이, 2014년에는 도시공사팀이 최종 우승을 했다.

이번 드래곤 보트 페스티벌에는 보트 경주대회와 함께 스포츠 스타의 나눔 행사도 진행된다. 김성근 한화이글스 감독, 김대관, 조인성 선수 등 6명의 야구스타들의 클러브, 배트, 스포츠 고글 등 애장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드래곤보트 페스티벌은 전국 최대 규모 드래곤보트 대회로 야구 스타 자선경매를 통한 사회적 나눔도 진행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제3회 기성 거북이 마라톤 열려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대전시 설관리공단(이사장 김근중) 기성종합복지관은 17일 오전 10시 30분 장대산자연휴양림에서 관내 장애인 거주 12개 사회복지시설, 기성중학교 학생, 자원봉사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거북이 마라톤' 행사를 개최했다.

기성종합복지관이 주최하고 기성동북지민들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맥키스컴퍼니의 지원으로 장애인과 봉사자가 한 조가 되어 2km의 휴양림 숲길을 함께 걷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북원봉사회와 기성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공연이 마련되었으며, 대청병원의



지원을 받아 구급차 및 의료진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했다. 기성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올해 거북이마라톤 대회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시설

이 밀집한 지역 특성에 맞게 장애인태권도교실, 장애인국악교실 등을 개설·운영하여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열린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호 기자

중구, 2016년 축제위원회 개최

각종 축제 효율적 추진·경쟁력 향상



중구구청장 박용갑은 16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도 중구에서 개최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축제위원회를 개최했다.

구는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내년 개최

예정인 2천만원 이상의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에 대하여 축제별 사업계획의 예산 심의와 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축제위원회에서는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와 2016 종교로 차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 제2

회 대전 갈국수 축제 사업계획(안) 등 중구의 대표적인 3개 축제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제8회 대전효문화뿌리축제는 6억4천만원, 종교로 차없는 거리 토요문화마당은 1억2854만원, 제2회 대전갈국수 축제는 1억3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을 심의 결정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유치벽 연극협회시지회장은 각종 축제 개최 시 문화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해 더 좋은 프로그램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면 양질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용갑 청장은 "축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주시는 감사하다"며 "중구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선 기자

서구, 가을밤 '대중문화콘서트' 개최

감성충전 퓨전클래식 공연 펼친다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21일 저녁 7시 30분, 관저동 건양대학교병원 야외주차장에서 '가을밤의 낭만'이 물드는 가을밤 대중문화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음악과 클래식 공연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낭만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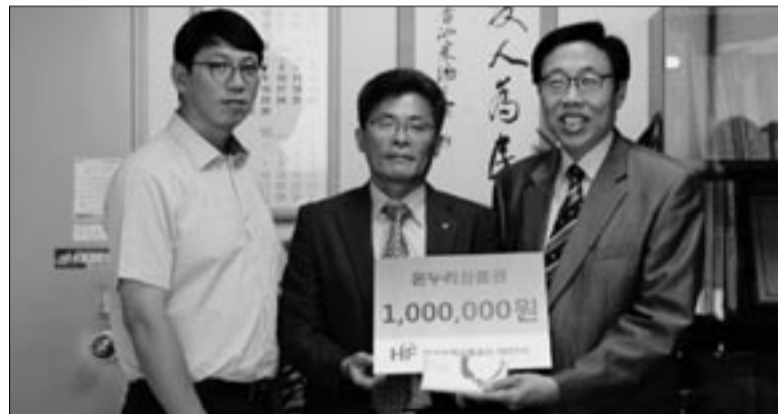
유종화 전문MC가 사회자로 나서 재치있는 입담으로 콘서트를 진행한다. 블루스 기반의 크로스오버 락밴드인 그룹사운드 '진채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프로경력 13년 차 중부권 최고 미술사 '이승환'의 미술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그대 품에 잠들었으면'의 주인공 가수 '박정수'의 공연과 'Mnet 댄싱9 갈라쇼' 등에 출연했던 여성 5인조 '에이드'의 댄스퍼포먼스 공연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명 성악가와 피아노, 타악기 연주자 등으로 구성된 '이야기를 노래하는 일칸토'는 스토리텔링형 공연 콘텐트로 감성충전의 퓨전클래식 공연으로 가을밤을 물들인다.

김태선기자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 전달

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지사장 조성현)는 지난 16일 대전시 노인복지관관장 유한봉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써달라며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조성현 지사장은 "대전시노인복지관은 대전을 대표하는 노인복지관"이라며 "설 명절 이후 다시 한

번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나눔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한봉 관장은 "대전시노인복지관을 찾아주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사회적 효행운동에 앞장서달라"며 당부의 인사를 대신했다.

송병배 기자

제3차 시민감시위원회 열려

조직운영 투명성 제고

시민감시위원회(위원장 한병철)는 17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안기호) 회의실에서 '2015년 제3차 시민감시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2분기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조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들에게 의한 감시체계 구축 및 시민

감시위원들의 상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직의 신뢰성·책임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민감시위원회를 구성, 운영중에 있다.

한편, 시민감시위원들은 조직 운영 및 모금·배분사업에 대한 업무현황 청취 및 감시활동에 따른 시정·개선 요구를 통해 모금회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송병배 기자

대덕구, 여성이 견고 싶은 옛길 조성

여성친화도시 발전 발판 마련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여성친화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시·군·구 공모사업에 선정돼 1억원을 확보하고 동촌당공원 일원에 '도심속 여성이 견고 싶은 옛길'을 조성한다.

구는 이번 사업을 지역적 특성을 살려 동촌당생애길, 스토리가 흐르는 정려의 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역사를 일리는 스토리보드 설치와 황돛길 조성, 휴게시설, 운동기구 설치 등 여성친화적인 공간으로 탄생시킬 계획이다.

대상지역은 대덕구의 대표적 주거지역인 송촌동 상가와 주택가에 접한 이면도로에 여성 및 유아, 노인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역사관련 스토리보드를 설치하여 여가와 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도심속 여성이 견고 싶은 옛길 조성으로 송촌동 주변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대전시의 대표적 조선시대 여성문인인 김효연 재의 생애를 알리는 등 건전한 여가문화향양의 기회로 삼아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위상을 제고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선 기자

“상랑이오” 한옥 지원 사업 첫 상랑식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으로 한옥 신축 시 최대 1억원 무상 지원

“상랑이오~”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송산마을에 낮선 광경이 펼쳐졌다. 다름 아닌 한옥 상랑식이 개최된 것. 상랑식은 기둥의 보를 얹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마룻대(대들보)를 올리는 의식으로 전통 한옥 신축이 사라진 요즘은 보기 어려웠다.

상랑식이 치러진 한옥은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착공한 것.

한옥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건축주는 공주시로부터 한옥 신축에 따른 보조금 1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건축주 서씨는 “집을 지은 지 오래되어 생활이 불편이 많았는데 한옥을 지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됐다”며 “한옥은 평당 단가가 비싸 엄두도 못 내다 이번 사업 덕분에 멋스러운 한옥을 한 가구는 금성동에만 10여곳에 이르며, 최근에는 제민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옥 신축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재 서씨와 같이 한옥 신축 지원 신청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지정지구

을 한 가구는 금성동에만 10여곳에 이르며, 최근에는 제민천변 지역을 중심으로 한옥 신축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청남면 지역 우수한 농특산물 판매

청양 청남면 아산레이장 전종봉은 지난 16일 한화생명 주최 1사1촌 자매결연 지 직거래장터에 참가해 우수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에 나섰다.

아산리 주민 30여명은 이번 농산물 직거래장터 참여를 위해 고추, 햅쌀, 뽕싹 등 30여종의 농·특산물을 준비해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렸다.

전종봉 이장은 “한화생명과 자매결연한 지 8년이 됐다”면서 “앞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과 아산리는 지난 2008년 9월 1사1촌 자매결연을 한 후 매년 일손 돕기, 아트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건강검진,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도농교류 활동을 벌여왔다.

청양=정성범기자

롯데백 대전점 감시의 마음 전하세요

구매금액에 따라 롯데상품권 증정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추석 선물제안 행사와 함께 다양한 행사를 마련, 고객들을 맞이한다.

지하1층 식품관에서는 25일까지 정육, 갈비, 청과, 굴비, 건강식품, 한과 선물세트 등 추석선물 상품을 선보인다.

추석 식품선물세트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롯데상품권 증정 사은행사도 진행되어, 식품선물세트를 당일 30·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 롯데상품권 1만5천·5만·10만·15만·25만·50만원을 증정하고, 건강식품을 당일 20·4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각 롯데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한다.

설탕수, 헤라, 오뚜기, 후, 프리메라, 슌 등 1층 화장품 매장에서 당일 20·4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롯데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하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가전제품과 가구, 주얼리, 시계, 모피, 해외명품 상품을 당일 100·200·300·500·1000만원 이상 구매 시에는 각 롯데상품권 5·10·15·25·50만원을 증정한다

그리고, 추석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활용해 쇼핑하는 고객들을 위한 사은행사도 진행한다.

다음달 11일까지 롯데상품권이나 SK, GS, 세화상품권으로 당일 20·40만원 이상 구매 시 각 롯데상품권 1·2만원을 증정한다. 각 층별로도 풍성한 행사가 펼쳐져 추석 선물을 제안한다.

9층 특선매장에서는 K2, 밀레, 블랙야크, 아이더, 노스페이스 등 ‘아웃도어 BEST’ 추석선물 제안전 행사가 펼쳐져, K2 바람막이 재킷을 1만3000원에, 밀레 슬림다운을 9만9000원에, 아이더 윈드재킷을 8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받고 싶은 추석선물 아이템을 만나 볼 수 있다.

7층 행사장에서는 ‘블랙엔화이트 이월 상품전’이 마련되어 티셔츠, 니트, 점퍼 등 가을과 겨울 인기아이템을 선보이고, 6층 캠프 매장에서 2015년 가을신상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5층에서는 셔츠, 넥타이 등 부모님이나 은사님을 위한 ‘추석선물 효 상품전’이 마련된다.

승병배기자

아산폴리텍대 현대파워텍 취업특강 진행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학장 윤기섭은 지난 16일, 대학본관 대강당에서 현대파워텍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취업을 앞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대파워텍 인

사실장 초청 취업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특강에서 현대파워텍 인사담당자는 회사소개, 복리후생, 공개채용 지원방법 및 준비사항,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등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들을 소개했다. 특히, 2001년 출범한 국내 최초의 자동변속기 전문기업인 현대파워텍은 현대자동차그룹의 대표적 인 자동차부품기업이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춘 꿈의 직장으로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기업 중의 하나임을 반증하 듯 질의응답시간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궁금해 했던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현대파워텍 인사담당자는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자신의 지원분야에 적합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와 현대파워텍은 지난 6월 14일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아산=리량주기자

“청양표고 마트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청양군산림조합, 내년도 임산물 유통 100억원 목표



청양군산림조합(조합장 명노영)이 청양표고를 대형 유통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내년부터 지역에서 생산되는 표고버섯을 대량 수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은 지난 14일 조합장실에서 청양군베이지표고버섯 재배농가와 공급 및 수매에 따른 협약서를 주고받았다. 그동안 청양군내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은 소비자들로부터 품질의 우수성과

그 명성을 인정받아왔으나 중간 유통업자들 통해 소포장으로 판매돼 명품으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보다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체계망이 절실한 처지였다.

이에 산림조합은 유통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청양표고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하는 등 판매망의 다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는 한편 지역에서 생산되는 연간 100억원에 가까운 표고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양을 표고 유통의 메카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유통사업을 총괄하는 한창훈 상무는 “임산물은 최근 틈새시장에서 급속히 부각되는 소득 작물로 그동안 군에서도 적극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판로의 한계 때문에 규모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조합의 임산물 유통사업의 확대는 재배농가에 큰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청양군내 표고버섯 재배 현황은 전체 250여 농가에서 연간 4000여톤의 표고를 생산, 120여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원목표고가 30%, 베이지표고가 70%를 차지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케도업체와 상생발전 방안 찾다

철도공단, ‘찾아가는 토론회’에서 애로사항 수렴·개선방안 공동모색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난 15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방문, 케도분야 전반에 대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케도공사사업협의회, 케도설계·공사·감리업체 등 18개 관련 업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가졌다.

주최에서 시공사에 직접 제공하는 자재화, ▲케도소재 및 공사용 가설자재 대가 현실화, ▲측량관리자 경력인정 요건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시해 공단은 향후 제도개선 시 검토해 반영토록 노력과 협조를 다짐했다.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도 케도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토론회’를 통해 협력업체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 공단과 케도업체가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승병배기자



천연 미네랄 함유된 사과 수확 분주

태안군, 황토에서 해무 맛고 자라 품질 좋아... 추석 선물로도 '으뜸'

칼로리가 적고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인 태안군 사과가 추석을 맞아 본격 수확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안읍 상옥리에 위치한 사과농장 ‘솔개농원’에서는 약 1만 6500㎡의 노지에서 중생종(홍로)과 만생종(부사)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최근 추석 대목을 맞아 매일 200~300kg의 중생종을 출하해 판매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태안군 사과는 몸에 좋은 황토에서 자라는데다 생육에 적합한 계절인 봄과 가을이 상대적으로 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당도가 16브릭스(Brix)로 높고 과일 크기도 커 상품용으로 인기가 많다.

특히, 인근 바다에서 밀려오는 해무(海

霧)에 천연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인위적인 미네랄 공급 없이도 고품질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장 측의 설명이다.

솔개농원에서는 품질에 따라 중생종 5kg당 2만원에서 3만원 선에 현대백화점과 서산시 공관장 등에 납품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추석까지 중생종 총 5톤 가량을 수확해 납품할 계획이다.

솔개농원 대표 안석원 씨(64)는 “사과 생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태안군에서 자란 사과는 당도가 좋고 품질이 좋아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우수한 과일”이라며 “명절 선물용으로도 아주 좋은 태안군 사과를 많은 분들이 드셔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환기자

순천향대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총 1,737명 모집에 1만4344명이 지원 8.26대 1의 경쟁률

순천향대(총장 서교일)는 지난 15일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737명 모집에 1만 4,344명이 지원해 8.26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경쟁률(8대 1)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누어 학생을 선발한 결과, ▲학생부 교과 전형 일반학생(교과) 전형에서는 950명 모집에 9,085명이 접수해 평균 9.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영어영문학과 13.73대 1 ▲특수교육과 10.09대 1 ▲연극무용학과 30.88대 1 ▲경찰행정학과 10.33대 1 ▲스포츠과학과 28.73대 1 ▲사회체육학과 35.24대 1 ▲스포츠의학과 28대 1 ▲의예과 22.12대 1 ▲임상병리학과 9.44대 1 ▲간호학과 10.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생부 종합 전형 정원 내 일반학생 종합 전형에서는 291명 모집에 2,716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9.33대 1로 나타났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유아교육과 24.83대 1 ▲정소년교육·상담학과 16.30대 1 ▲미디어콘텐츠학과 13.14대 1 ▲경찰행정학과 22.14대 1 ▲신원방송학과 14.38대 1 ▲사회복지학과 13.77대 1 ▲스포츠과학과 21대 1 ▲스포츠의학과 19.5대 1 ▲기계공학과 23.8대 1 ▲정보보호학과 11대 1 ▲의예과 31.6대 1 ▲간호학과 24.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밖에 전형에서는 지역인재 6.16, 체육특기자 3.07, 고른기회 3.49 특성학교교졸업자 5.56으로 마감했다.

아산=리량주기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공식 개장

19일, ‘싱싱장터 도담도담’ 오픈... 오색가래떡 나눔 등 다양한 이벤트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의 로컬푸드 첫 직매장인 ‘싱싱장터 도담도담’이 19일 정식 개장을 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시는 19일 10시 도담도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도담도담’의 개장식을 개최한다.

식전행사인 김늘이농약을 시작으로 로컬푸드 비전 영상 소개, 기념 식수, 송편 빚기 체험과 시식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생산자와 소비자 등 500여명의 시민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오색가래떡 나눔행사’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달 29일 임시개장한 싱싱장터는 지난 3주동안 190여개(농산물 140여개, 가공품 40여개, 축산물 5종 등) 품목을 판매해 1일 평균 14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방문고객도 1일 평균 820명이나 했

다. 세종시는 3주간의 성과를 토대로, 정식 개장식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면서 판촉전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 “싱싱장터 도담도담은 우리시 로컬푸드 직거래 운동의 첫 열매이면서, 전국적인 로컬푸드 운동 확산의 시범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직매장이 단순히 생산자와 소비자간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소를 뛰어넘어, 문화와 이벤트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교류 장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싱싱장터 도담도담은 지상 1층, 794㎡ 규모로 200여 규모의 주차장을 갖췄으며 지역 내 171 농가가 재배한 다양한 농산물과 함께 지역의 축산물 및 가공품도 판매한다.

세종=김정환기자

신문대, 나노종합기술원 교류 협정 체결



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6일, 본관10층 소회의실에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재영)과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이익증진에 공헌할 목적으로 연구시설·장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분야를 위한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대학 및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문대학교의 나노분야 교수들은 지난 수년간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노공정 및 분석장비 등을 활용하여 나노기술연구를 진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교류협정을 통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기술정보 교류, 교육관련 교류, 학술정보 교류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국내의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를 교환,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문대학교는 부족한 연구장비의 해소로 교수들의 연구성과 향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나 실무형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신문대학교(총장 황선조)는 16일, 본관10층 소회의실에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재영)과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간 이익증진에 공헌할 목적으로 연구시설·장비 교류협정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노종합기술원은 나노기술 분야를 위한 고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대학 및 기업들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신문대학교의 나노분야 교수들은 지난 수년간 나노종합기술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나노공정 및 분석장비 등을 활용하여 나노기술연구를 진행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교류협정을 통하여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활용, 기술정보 교류, 교육관련 교류, 학술정보 교류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국내의 관련 기술자료 및 정보를 교환,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공동개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신문대학교는 부족한 연구장비의 해소로 교수들의 연구성과 향상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기회가 늘어나 실무형 인력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산=리량주기자

새로움 더한 제61회 백제문화제

기존 프로그램 내실 다져 볼거리와 즐길 거리 더해진 축제의 장 기대



오는 9월 26일 공주시 금강산관 공원에서 본격적인 막을 올리는 제61회 백제문화제가 기존 프로그램에는 내실을 더하고 참신하고 재미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주시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9일간 '1400년전대백제의 부활! 백제 다시 태어나다'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제61회 백제문화제에는 총5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기대를 모으는 프로그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새롭게 선보이는 공산성 배경의 실경공연이다.

매년 아름다운 야경으로 명성을 떨쳤던 공산성과 금강의 절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실경공연은 웅진백제의 무령왕 스토리를 다양한 빛과 퍼포먼스를 가미한 수변뮤지컬로 진행될 예정이다. 많은 이목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주제로 옛 기록물과 입체영상 상영을 진행하는 공주주제관도 새로운 볼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공주=정성범기자

대전시티즌, 전북 원정서 승리 노려



대전시티즌이 9월 20일 오후 4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모터스와의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대전은 13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남드래곤즈와의 3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연패를 벗어난 대전은 이번 전북전을 통해 또 한번 분위기를 탄다는 계획이다.

대전은 부상에서 복귀한 서명원의 골에 반색했다. 전반 11분, 원필손의 드리블에 이어 서명원이 구석을 찌르는 완벽한 슈팅을 시도하며 골문을 열었다. 하지만 후반 12분 전남 이종호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승점 3점을 쟁하지는 못했다. 김정환기자

최문식 감독은 전남전이 끝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전 축구가 확실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준비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대전은 이번 주말 전북 원정을 통해 아쉬움을 달래겠다는 각오다. 지난 7월 홈에서 3-4로 패했으나, 리그 1위 전북을 맞아 대등한 경기를 하면서 큰 자신감을 얻은 바 있다. 관건은 수비다. 대전은 전남전에서 실점률을 낮췄지만, 동점골을 헌납해 무승부에 그쳤다. 이번 상대는 공격력을 주무기로 하는 전북인 만큼 수비를 보완해 더욱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내 다가구매입 임대사업 부실 진행

“예산 낭비”...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LH가 수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지역)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8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만232가구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는데 이 가운데 7,321가구가 '보수 5,283가구 포함'이 빈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매입주택 1가구당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8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97채(24.5%)로 빈집이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01채(17.8%), 경남 820채(11.2%), 경북 681채(9.3%), 인천

640채(8.7%), 대전 532채(7.3%) 등 순이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미임대 현황을 살펴보면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3,048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개월 이상 1년 미만동안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870채, 1년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1,173채이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141채(37.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385채, 서울 256채, 부산·울산 222채, 강원 193채, 대전·충남 172채, 충북 157채 등 순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현재처럼 공공이 재정적 부담까지 모두 떠안으면서 공급량 늘리기에만 집중하되 빈집이 많은 곳에 임대할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 매입임대·공공임대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택이 노후화 돼 임주를 꺼리고 있는 만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 모집 및 공급방법도 개선해 공공임대사업의 취지가 되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기자

청양군 알프스마을,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대통령상

전국 제일의 행복마을로 손꼽혀



청양군 알프스마을이 올해 대통령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전국 제일의 행복마을로 손꼽혔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소득·체험분야에서 정산면 알프스마을이 1등인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해 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알프스마을은 지난 6월 제20회 전국 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상을 받아 농촌의 다원적 측면 개발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은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인정받게 됐다.

알프스마을은 37세대 103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산골 오지 마을로 농업생산성이 취약한 점을 극복하고자 겨울철 바람이 매섭고 해가 잘 들지 않는 자연 환경을 이용, 칠갑산 일출봉수 축제를 기획해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세계 조롱박 축제와 칠갑산공 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지난해 기준 연간 25만명의 방문객과 매출액 18억원의 성과를 낳았다.

앞으로 알프스마을은 2020년까지 뷰티센터를 건립해 마용 테마마을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이용해 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하고 4계절 축제 테마 마을을 완성함으로써 방문객 50만명, 매출 40억원, 상근직 25명·일용직 8000명 일자리 창출 등의 목표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상향식 지역개발을 확산해 농촌을 아름답고 활기찬 삶터, 일터, 쉼터의 행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내 모든 마을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수 있는 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충남도, 추석 명절 종합대책 수립 · 중점 추진키로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 등... "안전하고 넉넉한 연휴 만든다"

충남도는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안전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 중점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재해 재난 및 안전사고 대책 ▲물가안정·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보호 ▲교통소통 및 안전대책 ▲비상진료 및 보건·방역대책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 보내기 ▲깨끗하고 불편 없는 지역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분야로 구성했다.

분야별 추진계획을 보면, 도는 우선 내달 제한급수 등 가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명절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가뭄대책종합상황실을 꾸려 시·군의 급수체계 조정 상황을 살피고, 지하수 등 또 다른 수원 확보 계획 등을 유관기관과 협조해 수립한다.

또 가뭄 극복을 위한 절수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자체 수원 확보, 광역급수체계조정, 급수차 확보, 병물 비축등도 속도낸다.

각종 재해·재난에 대비해서는 비상근무조를 편성,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보고·전파 및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도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며, 저소득 소외계층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는 또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화재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대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10일 동안 긴급 수송대책 강구, 긴급 상황처리 및 보고, 주정차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및 민원처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시외버스 예비차 투입 및 중

회 운영, 전세버스 투입, 택시 부제 해제 등으로 귀성·귀경길 교통 편의를 높이고, 도내 여객선 선착장 및 터미널에 대해서는 명절 전 안전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해서는 도와 시·군에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연휴기간 비상 진료기관 및 휴일진료이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도는 특히 함께 나누는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무관 등 나눔 문화 확산, 소외계층 명절 지원 및 보호, 결식아동 급식대책도 마련해 추진한다.

이밖에 깨끗한 명절을 위해 생활쓰레기 청소 대책을 마련하고, 공중화장실 일체점검을 실시하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이와 함께 26~29일 연휴기간 중 연인원 1943명을 투입해 종합상황실 및 분야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신속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포=이지용기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추석 연휴기간 정상 운영

시설 이용고객의 편의 제공하고자... 공설봉안당과 건강문화센터 정상운영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연휴기간 중 시설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설봉안당과 건강문화센터를 정상운영 한다고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은 추석 연휴기간을 앞두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정비하는 등 이용고객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공영주차장(시민로, 이순신대로)47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특히, 이번 명절기간을 이용하여 공설봉안당을 찾는 추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는 27일과 28일에는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2시간 연장하여 운영한다.

또한, 건강문화센터에서도 추석전일(26일)과 당일(27일) 헬스장과

찜질방을 제외한 사우나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정상 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생태관 충원은 연휴기간 중 28일, 29일 2일간 정상운영 한다.

김문식 이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도 고객들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산=리량주기자

당진시, 추석명절 대비

불법 축산물유통 특별점검

당진시가 추석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당진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육류소비 증가로 부정축산물의 유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점검 내용은 ▲육우 및 젓소를 한우고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가래내역서 작성 이행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양돈장 등 축산사업장의 광지역에서 이뤄지는 추석 제수용소·돼지의 밀도살, 밀도살된 육류의 판매행위를 점검해 위법행위 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당진=최근수기자

dajeontoday.com

대전대 신문방송사 주관... 오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응모

개교 35주년 기념 '대전대 문학상' 공모



대전대학교(총장 임용철) 신문방송사 주관 개교 35주년 기념 '대전대 문학상'을 오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응모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 32회를 맞이하는 대전대 문학상은 대전대에 재학하고 있

는 학부·대학원생(일반 및 특수대학원 포함)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문학과인문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대전대 문학상 응모 부분은 ▲시 3편 이상 5편 이내 ▲소설은 원고지 80매 이내 ▲문학평론 원고지 80매 이내 ▲수필 원고지 20매 이내이다. 작품은 원고지가 아닌 A4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반문서 형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수필은 자유주제 또는 '대전대 캠퍼스 이야기'가 포함되면 된다.

작품 응모접수는 대전대 신문사 직접방문, 우편접수, 원본파일은 Email(song@cu.kr)접수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당선작 발표는 11월 12일자 대전대신문에 게재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정복기자

롯데백화점 대전점, 여행관련 용품 한 곳에

여행가기 전 '엘트레블'에서 준비



롯데백화점 대전점(점장 강재욱)은 지난 9일, 7층 스포츠·레저 매장에 여행준비를 한곳에서 끝낼 수 있는 여행테마 편집매장인 '엘트레블(El Travel)'을 새롭게 오픈했다.

'엘트레블'은 롯데백화점이 새롭게 선보이는 '여행 윈스탑 스토어' 컨셉의 편집샵으로, 여행용 캐리어, 리프트웨어, 선글라스, 슈즈를 비롯해 모자, 폴딩백, 러기지네임백, 여권커버 등 다양한 여행객을 위한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선보이고 있다. 송병배기자

의류, 가방, 액세서리 등 상품군 간 경계 없이 여행 테마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성해 선보이는 '엘트레블'에서는 인기 연예인 캐리어로 유명한 홍콩의 캐리어 브랜드 '멘도자(Mendoza)'와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캐리어 '수잇수잇(SuiSui)', 브라질의 플리플립 브랜드 '하비니스', 스포츠용 의류와 액세서리 브랜드 '베럴(Beard)', 여행용품 브랜드 '알리프디자인' 등 총 10여개 국내외 브랜드의 여행관련 용품을 만날 수 있다. 송병배기자



충남농협, 추석 및 밤 수확기 맞아 농촌 일손 지원... 농협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조권형)는 추석 및 밤 수확기를 맞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며 '농업·농촌과 함께 하는 농업'을 실천하고 있다.

당진시민, 모다아울렛 불법 현수막·전단지 '눈살'

개장 앞두고, 17일 새벽 기습 설치·홍보전단지 시내 곳곳 무단 배포

당진 행담도에 신축을 완료하고 오늘 오픈하는 '모다아울렛'이 개장을 알리는 불법현수막 및 전단지 가 도심 곳곳을 점령한 것에 대한 논란과 함께 당진시가 적극 나서서 철거는 물론 고발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 달 17일 가보경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법광고물 및 관할동 일제정비를 오는 9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능장대

음으로 주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모다아울렛은 오늘 오픈을 앞두고 16일 오후와 17일 새벽 무렵에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을 도로변에 기습적으로 설치했고 홍보용 전단지도 시내 곳곳에 무단 배포했다.

당진시는 공권력을 비롯한 불법을 자행하는 모다아울렛의 개장 현수막에 대해 즉각 철거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이 이뤄져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어 전단지 포함 불법 광고물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는 적법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며 상습 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며 "시는 적법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며 상습 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막이 더는 지리 잡지 못하도록 시민 편에서 행정을 펼쳐 주길 바라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며 "시는 적법 즉시 정비와 제재에 들어가게 되며 상습 적발자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서구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 교양 강좌' 개강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17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별 맞춤형 '외국어 교양 강좌'를 개강했다.

이번 강좌는 '서구 건강체력관'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주 2회씩,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

구는 주민들의 외국어 수준에 따라 중국어 초급·중급, 일본어 초급·중급 4개 반으로 편성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등 정부 3.0 정책 기조를 반영한 수준별 맞춤형 강좌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강사경력이 풍부한 원어민 강사의 살아있는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이다. 수강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구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태성기자



논산소방서, 특수시책 발표대회 1위 영예 지난 16일, 충청소방학교 대강당에서 있었던 '2015년 화재대응능력 평가 인증을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 발표대회'에 참가해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위험에지훈련 경연대회 연습 구슬땀 10월 28일 수요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청양읍 소재)에서 개최되는 '2015년 위험에지훈련 경연대회' 대비하여 참여대원 모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청양군 화성면 여성의용소방대 환경정화활동 실시 대원 20여명은 추석명절을 앞둔 16일 관내 일원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아산북, 농기계 보호 쓸라경광등 제작·부착 추수철을 맞아 경운기 등 농기계 운행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쓸라경광등 500개를 제작, 경운기 등 농기계 뒷부분에 부착해 주고 있다.



천안서북소방서, '사랑의 소화기 기증식' 17일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위한 '사랑의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포스코건설 로부터 소화기 100대를 기증받았다.



금산소방서장, 추석연휴 대비 금산인삼수삼센터 현장지도 조영학금산소방서장이 16일 추석연휴 대비 금산인삼수삼센터를 직접 현지 방문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점검에 나섰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사회지도층 특별한 보존공감 참여 충남청양에서 의병으로 일제에 맞서 애국선양에 앞장선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박운식(1868~1939)씨의 손자녀인 박현숙(82)씨가 거주하는 요양원 '어머님의 집(대전변동)을 찾아위로했다.

흡소핑, 보험으로 1조7328억원 대박... 피해도 '급증'

송호창 의원 "흡소핑업계가 보험판매로 얻은 이득만큼 소비자 피해도 책임 강화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 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흡소핑업계가 보험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소비자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흡소핑업계는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총 1조 7,328억원, 연평균 3,400억원이 넘는 보험판매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면 흡소핑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보험이 1위였고 불완전판매도 증가하고 있다.

송호창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각 흡소핑사들이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 수입은 무려 1조 7,3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흡소핑사들은 최근 5년간 15개 손해보험사들로부터 9,517억원, 25개 생명보험사들에게는 7,811억원을 보험판매수수료로 받았다. 2014년 한 해동안 올린 수익만해도 무려 3,830억원에 달한다. 2014년 6개 흡소핑사들의 영업이익이 7,143억원임을 고려하면 전체 영업이익의 53%에 이른다.

2011년 이후 생명보험사 중 흡소핑사에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라이나 생명으로 2014년에도 912억원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했다. 손해보험사 중 가장 많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한 곳은 1,945억원을 지급한 에이스화재로 2014년에만 627억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보험판매로 흡소핑사들이 고액의 수입을 얻는 동안 보험사들 역시 흡소핑을 통해 부지런히 매출을 올렸다. 2014년 손해보험사가 흡소핑을 통해 벌어들인 매출은 1조 5,763억원으로 2010년 6,418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생명보험사가 흡소핑을 통해 올린 원수보험료는 1789억원으로 이 역시 154억원이었던 2011년과 비교하여 상승한 수치다.

이처럼 보험상품의 TV흡소핑 판매를 통해 흡소핑사와 보험사들은 매년 고액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하지만 2011~2014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TV흡소핑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72건에서 2014년 383건으로 증가했고 흡소

핑을 통한 불완전 판매율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증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2014년 불완전 판매율이 0.69%로 전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지난해보다 불완전판매율이 상승했다. 보험사들의 불완전 판매율을 채널별로 비교해보면 흡소핑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보험설계사판매보다 불완전판매율이 2배 정도 높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KB손보가 2.28%로 가장 높았고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농협생명이 3%로 가장 높았다.

송호창 의원은 "흡소핑업계가 보험판매로 얻은 이득만큼 소비자 피해에도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2013년 동양상태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의 원인이 불완전 판매였다"면서 "흡소핑사와 보험사는 정확한 정보제공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의원은 "미래부는 흡소핑의 보험판매 관련 피해를 재승인시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형기자



배재대, 대전충청지역 대학 중 최초... 중·고교대상

'찾아가는 꿈자람 지원단' 운영



발제연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 교육·사회, 관광·경영, 문화·예술, IT·융합, 바이오·공학 등 7개 계열의 학과에서 재학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와 고교에서 요청하는 분야별로 지원단의 해당 학생이 직접 방문해 전공별 학문의 특성과 교과과정, 동아리 활동,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특히 1~2학년으로 조직된 지원단은 지난 4월부터 중·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동영상과 PPT 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대학 캠퍼스 생활과 전공에 대해 보다 알기 쉽고 친밀감 있게 설명하는 훈련을 받았다.

실제로 이달 들어 대성중과 범동중, 동방고를 방문해 진행한 전공 설명회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주에도 범동중학교를 비롯해 중일고와 충남여고에서 진로정보 제공 서비스를 진행한다.

꿈자람 지원단에 대한 문의는 ☎(042)520-5002, yesman@pu.ac.kr로 하면 된다.

이정복기자

배재대학교가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과 고교 진로정보 제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이 대학 임시정책연구소(소장 최웅재 교수)는 대전충청지역 대학 중에서는 최초로 '찾아가는 배재 꿈자람 지원단'을 구성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중·고교를 방문하고 있다.

꿈자람 지원단에서 활동하는 64명의 학생들은 외국어 계열의 글로

단풍 설악산서 25일 시작...평년보다 1~2일 빨라

절정은 중부 10월 28일경... 지리산 등 남부는 10월 20일~11월 11일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1~2일 빠르고 절정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단풍은 25일경 설악산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첫 단풍이 설악산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14일 사이, 지리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에서는 10월 7~29일 사이에 첫 단풍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단풍은 산 전체로 보아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말한다.

기상청은 이달 1~15일까지의 일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았고 16~30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돼 첫 단풍은 평년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풍은 하루에 20~25km의 속도로 남쪽으로 이동해 설악산과 두륜산의 단풍 시작 시기는 한 달 정도 차이를 보인다.

기상청은 9월 후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고 다음달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

돼 단풍 절정 시기는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단풍의 절정은 산 전체로 보아 약 80%가량 단풍이 들었을 때를 가리킨다.

단풍 절정 시기는 보통 첫 단풍 이후 2주 정도 뒤에 나타난다.

단풍 절정은 오대산과 설악산에서 10월 17~18일을 시작으로 중부지방은 10월 28일 사이, 지리산과 남부지방은 10월 20일~11월 11일 사이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성기자

범죄피해자 보호 활성화 위한 '따뜻한 편지' 제도 시행

둔산서, 범죄 피해자에게 전국 최초 손 편지 발송

심리검사 실시 통해... 세심한 피해자 보호활동 시행

대전 둔산서서장 김기용은 16일 전국 최초로 사건초기 불안한 범죄피해자들의 심리 안정을 도모키 위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손 편지와 사건 초기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여러 심리적인 후유증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정리한 참고자료를 발송하는 따뜻한 편지 제도를 시행한다.

따뜻한 편지 제도는 사건초기 급성기에 피해자들의 안정을 돕기 위해 아나토그시 감성을 자극하는 손 편지 외에도 심리적인 후유증을 모니터링 할 심리 검사(ES-R 등) 10여 종도 동봉하여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역시 급에서는 유일하

게 둔산서에 배치된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자격을 보유한 심리요원을 활용하여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 증상추이 모니터링, 후속지원 연계 등 피해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편 둔산서 청문감사관실 경감 고광학은 이번 따뜻한 편지 제도가 얼핏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정성과 전문성이 없는 시행을 할 수 없는 제도로서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호기자

KAIST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10위

KAIST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중 10위(아시아 1위)에 올랐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10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 대학의 기초 연구수준을 볼 수 있는 학술논문 수와 연구성과를 보호하고 상용화 하려는 대학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특허등록 수를 기준으로 순위가 매겨졌다.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1위부터 9위까지 미국의 대학들이 차지했다. 스탠퍼드대가 1위를 차지했으며 MIT 2위, 하버드대 3위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 대학 가운데 10위권 안에 순위를 올린 대학은 KAIST가 유일하다. 이정복기자

조폐공사, 화폐 제조과정 및 위변조 방지요소 소개 전시 부스 운영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 참가'



한국조폐공사(사장 김하동, www.komsco.com)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일산 킷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에 참가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15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대한민국 교육기부 행복박람회'는 다채로운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3년부터 해

다 열리는 교육기부 축제이다.

조폐공사는 '화폐디자이너와 함께하는 나만의 예코백 만들기' 체험부스와 화폐 제조과정 및 위변조 방지요소 소개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오억원 들어보기, 동전 쌓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폐공사 김하동 사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병배기자

취업준비생 46.8%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하겠다”

‘소통과 공유를 통한 업무역량 강화’

충남교육청, 효율성·통일성 위한 보수업무 담당자 워크숍 실시

<잡코리아>이유로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37.1%로 가장 많아

취업난이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취업 준비생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523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취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비정규직이더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에 해당하는 46.8%가 '그렇다'고 답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답한 이들은 53.2%였다.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을 가진 이유*복수응답으로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37.1%로 가장 많았

고, 이어 '일단 취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이 응답률 3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서 (22.7%) ▲더 늦으면 취업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서(19.4%) ▲정규직 채용 공고가 너무 적어서(8.3%) ▲정규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아서(7.9%) ▲원하는 직무나 기업에서 비정규직 채용만 이뤄져서(7.6%)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노릴 수 있어서(7.2%) 등의 의견이 있었다.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할 때 가장 고려하는 조건을 묻는 질문에는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39.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무나 업종'이 21.9%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연봉(21.2%) ▲기업규모

(9.4%) ▲복지후생(5.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취업준비생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지만, 정작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을 묻자, 응답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4.8%가 '부정적이다'라고 답한 것, 이들 취업준비생들이 비정규직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으로는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다(70.8%)'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복지(57.8%)', '낮은 급여(37.1%)', '타인에게 말하기 부끄럽다(11.0%)'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편, 취업준비생들 10명 중 8명은 최

근 비정규직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를 체감하고 있는지'를 묻자 89.5%가 '그렇다'고 답한 것. '체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은 10.5%에 그쳤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이 비정규직 증가를 체감하는 순간으로는 '비정규직 채용공고와 정규직 채용공고보다 많을 때'라는 답변이 5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변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들이 많아져서(23.9%) ▲신문이나 뉴스 등의 기사를 접할 때(15.4%) ▲먼저 취업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1.9%) 등의 순이었다.

이정복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18일 양일간 충남학생임해수원원에서 교육지원청 경리팀장과 보수업무 담당자 29명을 대상으로 '보수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보수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오지급 사례에 대한 분석·해결 방안과 업무 비법 공유를 통해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간 대회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효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내용은 ▲급여 과오지급 사례 발표

▲급여 업무방범개선편 연구발표 및 이행 대책 ▲채권인류 업무 추진 방법 ▲교육지원청 경리팀장과 보수업무 담당자 29명을 대상으로 '보수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일방적인 전달 형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를 마주 보고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경험을 설명하며 상황별 적절한 업무 처리방법에 대한 토의 형식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업무담당자 연수 기회를 제공해 각종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포=이지용기자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의 지평 넓히는 계기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 포럼’ 참가

한국식품마이스터고(교장 이병대)는 15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삼농(農業 農村 農民) 포럼'에 1학년 학생들을 참가시켰다.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삼농 포럼'은 충청남도가 21세기 농업·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고자 한국, 중

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한국식품마이스터고는 이 포럼에 1학년 학생들을 참가시켜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로 삼았다.

대전시교육청, 초등학교 진로설계교육 지원

학부모진로코치 활용... 초등학교 5학년 진로설계교육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초등학교 146교 5학년 653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코치를 활용한 초등학교 진로설계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9월 17일부터 25일까지 학부모진로코치 289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 701호 회의실에서 3기에 걸쳐 6일 동안 '초등학교 진로설계교육을 위한 학부모진로코치 사전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에서 추천받은 진로설계교육수업이 가능한 학부모 진로코치가 대상이며, 연수 종료 후 해당 초등학교의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당 2시간의 진로설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김정환기자

이번 연수의 주요 내용은 대전시교육청이 제작한 진로설계교육 수업 과정안 및 수업 자료 등을 토대로 직업카드 및 간단한 진로 관련 게임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한 진로설계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 진로코치를 활용한 진로설계교육 지원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어 왔으며, 학부모진로코치는 학부모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를 목표로 대전시교육청이 2010년 명에 진로설계사 양성을 시작으로 현재는 초, 중, 고에 3,000여명의 학부모진로코치를 양성하여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청양교육지원청 Wee센터 특별교육 프로그램

‘내 안에 잠든 가면을 깨워라’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은자) Wee센터는 분노조절 및 건강한 감정표현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9월 7일부터 2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분노조절과 감정표현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분노조절 및 건강한 감정표현을 통한 행복

한 학교생활 만들기'라는 목표를 갖고 2시간의 미술치료 과정으로 진행된다.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과 유형들을 살펴보고 분노 감정을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은 뒤, 가면 만들기를 통해 그동안 쌓인 자신의 분노감정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양=정삼범기자



온양용화중 · Wee클래스 유관기관 업무협약

온양용화중학교(교장 홍권표)는 지난 14일, 교장실에서 Wee클래스 대안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활동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은 오전에는 「사아산우리 가족상담센터」와 오후에는 「소연공방 과시행되었으며, 이번 협약으로 용화중학교는 교내에서 이뤄지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문 및 학교내 대안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리상담파트의 특별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인적·물적 지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비용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리량주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나의주장발표대회’

당진교육지원청, 인권침해 예방 및 의사결정력 신장 위해 실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재진)은 17일 인권침해 예방 및 의사결정력 신장을 위한 '2015 특수교육대상학생 나의주장 발표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특수교육대상학생 나의주장발표 대회는 장애학생들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들은 타인 앞에서 조리 있게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해 내 생각 표현하기에 자신감을 얻고 장애학생의 인권인식을 깨우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장애학생 나의 주장 발표대회는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사전에 참가자명단 수합 및 인종 심사를 거쳐 27명의 참가자를 선발했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내가 선택하고 싶은 나의 미래, 인권에 대한 나의 생각, 학교폭력에 대한 나의 생각, 인권침해로부터의 자기보호방법 4가지 분야에서 원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당진=최근수기자

공주교육지원청,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체험 지원 확대 위해 운영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단’ 구성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조병택은 17일 지자체, 유관기관, 학부모, 교사,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대표단 16명으로 구성된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단은 자유학기제 지자체 업무담당자인 공주시청의 이은창 팀장, 박기호 주무관 공주시청 교육체육과, 진로체험처 대표기관으로 공주우체국 한병섭 과장과 공주경찰서 이종규 순경, 진로코칭을 담당할 학부모 대표 고명애(공주중 학부모), 홍진영(공주여자중) 씨, 백남용 교장(사곡중), 문금자 교감(공주여중), 자유학기제 실무추진 담당 교사 안정운(탄전중), 김평수(경천중), 공주시 진로

진학상담 대표 교사 정구성(공주중),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 센터장 양병찬 교수(공주대학교)와 정규라 팀장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은 학생들이 진로 탐색과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체험처 발굴, 체험처 제공, 체험프로그램 운영, 진로 코칭 등의 업무를 전문화·세분화하여 다년간 협업을 통한 다방면의 행 · 재정적 지원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공주교육지원청은 공주시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삶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공주=정삼범기자



추부초 ‘제7회 방과후학교대상’ 교육부장관상

추부초등학교교장 이인원은 1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방과후학교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교육과정 돋움내! 추부

NICE 방과후학교 라는 슬로건으로 참가한 추부초등학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해 온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전국에서 우수학교로 인정받게 되었다.

금산=김남규기자



충남 남부평생학습관, 제1회 논산시 복지박람회 공예 체험부스 운영 충남 남부평생학습관(관장 송용재)은 오는 19일 10시 공설운동장에서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대한 홍보와 지역주민과의 나눔·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제1회 논산시 복지박람회에 참가하여 공예작품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송용재 관장은 기관장 선을 후원 물품을 전달하여 복지 나눔 실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솔로몬로파크에서 해돋이 · 해수이와 함께 사진 찍어요 솔로몬로파크(센터장 염정훈)는 이번 가을을 맞아 솔로몬로파크의 마스코트인 해돋이 · 해수이와 함께 하는 포토 이벤트를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 일요일에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 정 ●●●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



최고진 세종시 교육감= 18일 오후 2시 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재능나눔 활동지원 소양교육



김석환 흥성군수= 18일 오전 10시 흥성읍사무소에서 열리는 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소양교육 참석.

재인천 충남농시랑의 날 행사



황성봉 예산군수= 18일 오전 10시 예산향교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재인천 '충남농시랑의 날' 행사 참석.

전남시 차단방역망 본격가동

17일 충남도는 전남 나주와 강진 지역 오리 사육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 도내 AI 유입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망을 다시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홍성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과 시장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블록형단독주택용지' 개발 밑그림 나왔다

“내포신도시 명물로 자리매김”

내포신도시 블록형단독주택용지의 개발 밑그림이 나왔다. 내포신도시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총 4개블록으로(골프블리지 제외) 민간건설사가 매입대상인 용지이다.



앞서 충청남도개발공사는 블록형단독주택의 개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하나의 블록을 지정해 RB6블록(건강복지타운, 81,572㎡)에 대한 마스터플랜 공모를 약 2달간 진행한 바 있다.

충청남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필지만 개별적으로 구입해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수요도 있다고 판단되나 이번 사업은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을 대표”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지가 그림이 되는 마을을 구성해 내포신도시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라며 “일반인 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직직자들의 지속적인 이주를 독려하고 이들이 서로 공존하는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블록에 대한 개발 방식 등은 첫 번째 단지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농정원 세종청사 이전 조치원 발전 견인

150여명 근무... 17일부터 이전· 21일부터 본격업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조치원 청사로 이전한다. 이준희 세종시장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농정원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정원은 7월부터 조치원청사 본관을 리모델링해왔으며, 이사를 마친 뒤 21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정원이 농업별 교육을 비롯해 ICT선도사업 추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 연간 인원 8000여명의 유동인구가 발생해 조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을 경제·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조치원 청사를 복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농업정책,

산림축산, 가축위생연구소 등 농업분야 행정기능을 조치원청사에 배치했다. 또한 옛 교육청 청사에는 지난 6월 30일 ICT와 농업을 접목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개소했으며, 농정원이 입주하면, 조치원청사의 농업행정과 교육청 청사의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어우러진 농업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농업 분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옛 시청과 교육청 일대에는 조치원청사 시청 직원 115명, 농정원 150명, 창조경제 혁신센터 15명 등 모두 280명이 근무하게 된다.

세종=김정환기자

재래시장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

홍성군, 주차공간 한시적 허용... 전통시장 접근성 향상

홍성군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과 시장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전통시장(홍성읍2, 광천읍1, 갈산면1)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여 운영 중인 무인단속 CCTV 총 8개소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군이 보유한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천가천 전·후 계도 위주의 운영에 기반한 주·정차로 인하여 정체되는 구간에 즉시 출동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한시적 주차 허용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의 접근성 향상으로 시장 이용이 크게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정차 허용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제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



아름다운 도시경관 가꾸기 추진

예산군, 각종 축제·대화·방문자 사업 2016년까지 추진예정

예산군은 내년도 예산군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와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하는 참가자들과 관광객을 위한 도시경관 가꾸기 사업을 2016년도 까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예산군은 내년도 군에서 열리는 충남도민체육대회와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등 많은 관광객이 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군의 이미지를

아울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공표지판과 안내판을 일체 조사해 정비대상 25개를 발굴 그중 5개는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20개는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정비할 방침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제3차 공모

세종시, 10월 2일까지 접수... 최대 4개 기업 신규지정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대상기업을 10월 2일까지 공모·접수한다.



행복도시 추석맞이 환경정비 실시

도로청소·시설물 보원·잡초 제거·생활쓰레기 수거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종재)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16~25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전역에서 추석맞이 일제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행복도시를 통해 귀향객과 주민들이 편안하게 정비된 행복도시의 생활환경을 만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환경정비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호호 행복청 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수량 및 유속을 증대시켜 범새와 이끼를 제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사수목 교체와 잡초 제거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정복기자

홍성군 Clean-Sign의 날 캠페인

군민 자발적 참여 유도...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홍성군은 16일 홍성읍 중앙로 일원에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 및 자진정비를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물 정착을 위한 제2회 “Clean-Sign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인식 개선을 통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로 홍성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내포=이지용기자

학교폭력예방 페스티벌 개최

세종시, K-POP 뮤지컬 공연·포스터-글짓기 등 전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6~17일 세종문화예술회관과 정부세종컨벤션센터(SCC)에서 학교폭력예방 페스티벌 “너불어 함께”를 개최했다.

정 주사위 등 다양한 상담치료를 병행해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페스티벌은 세종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관, 교육청, 경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창주 시민안전국장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예방의식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정환기자

Advertisement for Daejeon Today (대전투데이) featuring a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042)538-3030, www.daejeontoday.com

세종=김정환기자

동정

심훈상록문화제 개막식



김홍장 당진시장 = 18일 오전 9시 30분 석문면민체육대회에 참석, 오후 2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재민천 충남농사사랑의날 행사에 참석, 오후 7시 시청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39회 심훈상록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심훈상록문화제 개막식



이재광 당진시장 = 18일 오전 9시 40분 당진3동 회의실에서 열리는 당진2동 이동의정실에 참석, 오후 7시 시청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제39회 심훈상록문화제 개막식에 참석.

고남면 체육대회



한상기 태안군수 = 18일 오전 10시 20분 고남면 고남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고남면 체육대회에 참석.

유아놀이 한마당



이석화 청양군수 = 18일 오전 10시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제10회 청양유아놀이 한마당에 참석한 후, 오후 2시 인천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재민천 충남 농사사랑의 날 행사 개막식에 참석.

청양유아놀이 한마당



김은자 청양교육장 =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리는 청양유아놀이 한마당 참석.



아산시 생명나눔 헌혈봉사실시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태진)이 지난 16일, 아산시청 광장에서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80여명이 참여 48명이 헌혈을 실시했다.

양위원장은 "이웃사랑의 실천인 이번 헌혈봉사에 참여해주신 동료 공직자분들과 시청을 방문했다가 헌혈에 동참해준 시민여분 덕분에 병상의 환자들에게 가을의 중요움을 선물할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립도서관 김낙수집장은 노조에 서 주관하는 헌혈은 물론 틈틈이 인근 헌혈의 집을 찾아 헌혈에 참여(32회)하고 있으며 "건강할 때 나의 작은 실천으로 병상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해 진다."고 전했다.

한편, 노조에서는 헌혈뱅크를 운영해 헌혈자들이 기부한 헌혈증을 모아 직원 및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시 사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산=리량주기자

지역원로 초청 의견수렴 시간 가져

당진시, 원로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기로

민선 6기취임 후 소동행정을 강조해 온 김홍장 시장은 17일 중회의실에서 지역원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현안에 대한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원로들의 오랜 경험과 식견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간담회

에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 중심의 당진형 주민자치와 3농 혁신 등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한 후 지역원로들의 참여와 조언을 당부했다.

이에 지역원로들은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동안 축적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김홍장 시장은 "당진의 발전과 화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신 지역 원로님들에게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시정을 잘 이끌어 시민 행복도시 당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당진=최근수기자

태안군 탄탄한 복지 인프라 구축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등 복지시설 대폭 보강·현대화 추진

태안군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신·증축 등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군은 17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주민복지과 정례브리핑에서, 태안군 복지환경 수준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회관, 시각장애인회관 신축과 장애인복지관 증축 등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사업 및 각종 시설 건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각종 복지시설이 복지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폐이용객의 욕구대비 기능 한계 및 공간협소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데 따른 것으로, 군은 한상기 군수의 관심 아래 지난해부터 복지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왔으며 향후 군민 복지제감도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군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중심의 복지실현을 위해 태안 남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내 7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17년까지 3266㎡(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한다.

지난 2006년에 건축한 현 노인복지관은 1586㎡의 규모로 1일 최대 250명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현재 기준인원의 열 배가 넘는 2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으로, 관내 65세 이상 인구가 2006년 1만 319명에서 올해 1만 6213명으로 57% 늘어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이 시급해짐에 따라 한상기 군수가 지난 7월 행정자치



부를 방문, 차관을 직접 만나 시설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20억원 지원을 건의해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착공해 2017년 초 개관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중이며, 완공되면 서북부권 노인들의 이용이 늘고 여가·건강·일자리 제공 등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유엔

한 주민복지과장은 설명했다.

군은 이밖에도 1만 6천여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태안군노인회관 건립을 위해 태안읍 남포리에 10억원 을 투입, 내년 준공 목표로 작공에 들어가며 지난 2007년 지어져 증축이 필요한 태안군장애인복지관 역시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885㎡(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 착공 예정인 시각장애인회관 건축공사를 비롯, 경로당 5개소를 신·증축하고 8개 읍·면 30여 개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등 지역 복지망 확충과 통합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한 주민복지과장은 "복지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 군은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지식·지혜·정서함양 위한 제67회 청양아카데미 열려

청양군은 18일 오후 2시 청양군 회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67회 청양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청양아카데미는 더소리 보이스 트레이닝센터 홍승표 원장이 '기적을 불러오는 긍정

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목소리를 통한 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행복과 행운을 부르는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홍승표 원장은 한국 성우협회 이사, 성경낭독선교회 및 '성경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회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와 기업체에 다수 출강해 호평을 받고 있다.

청양군은 지난 2006년부터 청양아카데미를 운영해 문화·예술적 환경이 열악한 군민들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저명강사를 초청 사회적

이슈와 변화, 삶의 지혜와 우수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서함양에 기여해 왔다.

청양군 담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 예술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저명강사를 초청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양=정성범기자

영인면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운영·물품나눔행사

아산시 영인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지역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17일 영인면사무소(면장 한기영) 회의실에서 '2015 찾아가는 복지상담창구 운영 및 물품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영인면 행복키움추진단과 사회복지과 행복키움지원단,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일지리지

원센터 상담사, 충청지역 법률상담사, 참요양병원, 시민요양병원, 영인면 직접자봉사회, 아산기초푸드뱅크, 아산시지원봉사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물품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복지상담창구에선 평소 궁금했던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이 많았으

며, 장기입원 및 회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상담, 파산·면책, 과다한 채무상환, 안정적인 직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정보 등 다양한 상담이 이뤄졌다. 또한 1:1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영인면 직접자봉사회의 이·미용서비스로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아산기초푸드뱅크에서는 기부물품을

지원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지상담-자활 및 일지리지원- 무료법률- 의료서비스 연계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한발짝 다가섰다.

신동남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산=리량주기자

당진시 지적측량 105년 만에 세계측지계로 전환

측량기준 2020년까지 단계적 전환 추진·일제잔재로부터 독립

당진시가 일제 강점기 시대부터 사용해 오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에 맞게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 일환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사용해 오던 일본 동경측지계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20년까지 시 전체 33만 필지 중 8만2천 필지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24만8천 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로 전환한다는 목표아래 사업전환계획을 수립했다.

이달부터 신평면, 우강면 7개 지구의 1만9천 필지에 대해 사업지구에 대한 공동점측량, 좌표변환, 측량성과 검사 등을 오는 12월 말까

지 완료할 예정이다. 측지계란 지구상의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기 위한 체계로 국가마다 서로 다른 지역측지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경측지계를 1910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동경측지계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일본 지형에 적합하도록 설정 됐고, 세계측지계는 지구 중심을 원점으로 해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일치하는 지역적 오차가

없는 국제표준으로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이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완료해 지적정보를 위성기술, 항공, 선박, 측량 등 공간정보에 활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면 공간정보 등 각종 정보와 연계해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지적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며 "최첨단 위성측량(GPS)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군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최근수기자

가을밤의 별빛 아래 '소리여울' 공연

청양군 통기타종이리 소리여울은곡편 공연

청양군 통기타 동아리인 소리여울회장 박영수씨가 지난 15일 저녁은

곡편 광암리 주민들을 찾아 가을밤 별빛아래서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공연에는 은곡면민과 광암리 주민 등 70여명이 자리해 소리여울의 통기타와 운주원 은곡면장의 하모니카 공연을 관람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아산레일바이크 황금 물결의 유혹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을 맞아 아산시의 대표 관광지인 「아산레일바이크」가 황금 물결로 넘실대며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아산시 도고면에 위치한 아산레일바이크는 지난 2009년 장항선 직선 선로 개설로 폐역이 된 도고역을 2013년 5월 옛도고온천역에서 선장 간이역까지 왕복 5.2km의 구간을 복선 구조로 재단장해 시민들에게 개장했다.

사시사철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이 매년 색다른 즐거움을 주지만 특히 레일바이크 코스에 위치한 들녘이 황금물결로 넘실대는 가을철이 아산레일바이크의 백미다.

총 4명이 탑승 가능한 레일바이크는 폐단을 밟고 역사를 빠져 나가면 좌측 벽면에 그려진 트럭 아트가 탑승자에게 즐거움을 안겨 준다. 이어 나오는 건널목에서는 상주하고 있는 안전요원이 인근을 통행하는 차량과 레일바이크의 안전한 교차를 돕는다. 이어지는 코스에서는 황금 들녘이 넘실거리며 탑승객에게 최고의 경치를 선사하며 반환점에 다다르기 전에 나오는 다리는 짜릿함을 전해준다.

특히 타 지역의 레일바이크와 달리 아산레일바이크는 순환구조의 왕복코스로 반환점에서 안전요원이 회전판을 통해 레일바이크를 회전시켜주기 때문에 여타의 레일바이크처럼 내렸다다 다시 타는 번거로움이 없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황금 들녘을 보고 50여 분간의 레일바이크 여행을 마쳤다면 한 자리에서 하늘을 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스카이라이드도 즐길 수 있다.

스카이라이드는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을 풀어줄 수 있는 체험시설로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체중 30kg 이상부터 130kg 이하의 생후 50개월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30kg 미만 어린이일 경우에는 보호자가 안고 체험할 수 있다.

또한 20인 이상 단체 예약시 화덕피자와 돈까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제공된다.

아산레일바이크의 이용 가능 시간은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이용료는 2인 18,000원, 3인 21,000원, 4인 24,000원으로 타 지역의 레일바이크보다 저렴한 편이다. 특히 추석 명절 고향을 찾아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려 하는 이용객들을 위해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한다. 단, 추석 당일인 오후 1시 개장

기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레일바이크 홈페이지(http://www.아산레일바이크.com)나 전화(041-547-7882)로 문의한다.

아산=리량주기자

무보험 운행차량 '꼼짝마'

태안군, 도로 위 안전 위해 영장발부등 강력 대응

태안군이 군민의 도로안전과 차량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차량 운행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군은 최근 매일 30~40건의 무보험차량이 적발되는 등 무보험차량 운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무보험차량 운행 단속에 적극 나서서 한편,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단속대상 중 1회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라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정한기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열려

청양군은 지난 16일 국민 맞춤형 정부 3.0시대를 이끌어 갈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보지식인 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정보화 정책과 더불어 현업 업무 개선 등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정보화인식 확산 및 업무관련성을 강화한 대회로 공무원 역량개발을 통한 앞선 군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최됐다.

6급 이하 44명의 공무원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IT 관련 정보화 종합지식을 평가하는 문제와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문제 해결능력에 중점을 두는 정보화 정책역량평가로 이뤄졌다.

군은 앞으로 체점을 통해 최우수 2명, 우수 2명, 장려 4명을 표창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실적우수 3명과 5급 별도추천자 1명은 내달 있을 충남도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편 청양군은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상시학습 체계 정착 및 정보화 트렌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실시로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

청양=정성범기자

우리/동네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보고회

천안시,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행복천안 실현 매진

천안시가 1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좋은 일자리가 풍부한 행복천안 구현'을 위한 일자리 창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추진 중 문제점을 도출하여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 시민이 행복한 천안을 만들기 위한 다각의 자리로 개최했으며, 서철모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 추진 담당자 및 팀장 12과 22팀 53명이 참석했다.

시는 올해 296억원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 1만4342개 창출, 고용률 60.5% 달성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매진하고 있다.

일자리창출대책은 '시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강화 7대 중점과제'를 비롯한 취업계층별 일자리창출, 직업능력훈련강화, 고용서비스, 일자리 인프라구축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반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일자리창출 추진결과는 정부부처 1만809개, 민간부처 2075개 등 1만2884개로 89.8% 실적을 거두었으며 연말까지는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용인 지역경제과장은 "일자리목표의 성공적인 수행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고용 증대는 물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환기자



도로명주소 정착 위한 캠페인 실시

계룡시, 엄사사거리 '찾아가는 현장 홍보' 눈길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시민들의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에 대한 이해와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을 위해 지난 15일 엄사사거리 일원에서 추석맞이 시민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도로명주소와 상세주소의 조기정착과 지난 8월부터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변경된 새 우편번호 시행 등에 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마련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민 눈높이에 맞춘 홍보 ▲연령별 ·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각종 행사 · 교육과 연계한 홍보 캠페인 전개 등을 연중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의 편리함을 더하는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새우편번호가 성공적으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들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2일 엄사사거리 일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며, 다음달 2일 개최되는 '2015계룡군문화축제' 홍보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시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 실시

천안시는 지난 16일 동남구 북면 은석초등학교 앞 병천천 상류에서 2015년 수질오염사고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수질오염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안시가 주관하여 실시한 이번 훈련은 동남소방서, 한국환경공단충청권지역본부 등의 유관기관을 비롯, 민간기업체를 포함하여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북면 은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운전자 과실로 유조차가 전복되어 화재발생 및 탱크로리가 일부 파손되어 처리과정에서 유류, 방화수 등 약3톤이 인근 병천천 상류 하천에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방제훈련을 전개했다.

훈련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라 사고발생, 상황전파, 긴급구조 및 방제훈련 단계를 실제 상황으로 전개함으로써 방제장비의 점검, 방제인력의 업무숙지, 유관기관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훈련을 통해서 수질오염사고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방제 · 수습체계 확립 및 방제요원의 대응능력 배양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김정환기자

2016년도 시책구상보고회 열려

계룡시, 시정의 새로운 방향 제시... 시민과의 소통행정 추진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17일 상황실에서 최홍묵 시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및 6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책구상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예산편성 후 시책이 구상되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실시하여 시책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10월 이후 개최했던 보고회 일정을 한 달 앞당겨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책구상 보고회 전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부서별로 개최하여 사전 자문을 강화하고, 관내 학교와 금융기관, 기관 · 단체의 의견 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총 81건 중 55건은 시책에 반영 추진하기로 했다. 또, 2016년에 추진할 신규시책, 보완발전시책, 국 · 도비 확보사업 추진, 정책자문위원 의견 및 기관 · 단체 등의 건의 시책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대외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구상단계의 사업들이지만 부서별로 내년도 업무여건과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중점 추진할 정책을 계획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효'와 '소통'이 있는 효소행정 운영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지원 ▲외지인 관내 정착을 위한 체험 운영 ▲전입자 대상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 서비스 할 정책을 계획하고 세부 추진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주요 시책으로는 ▲'효'와 '소통'이 있는 효소행정 운영 ▲여성

최홍묵 계룡시장은 "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거나 검토할 것을 당부하고, 2016년은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소통을 통해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양송이 경영비절감으로 부여양송이 경쟁력 향상

1년에 12회 재배농가의 경우 740만원 경영비 절감



부여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6일 석성면 현내리 양송이 농가에

품화 시범사업 관련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기존에 작업 인력 5~6명이 반나절에 걸쳐 하던 양송이 배지 입상작업을 기계화작업으로 2시간에 완료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센터는 기존 양송이 재배사에 기계화작업을 적용시키기 위해 재배사 앞 벽면을 개방 가능한 형태로 개선하고 빛배지를 재배사 배지에 올려서 장치물 농가에 보급하여 입상용역비 35만원을 절감했다.

입상장치는 양송이 재배가 끝난 배지를 폐상할 때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에 12회를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740만원의 경영비를 절감해 실질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특화품목을 2년간의 집중투자로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부여군은 양송이 재배사의 쾌적한 환경 조성 및 작업의 자동화를 도모하고, 인력 절감을 통해 양송이버섯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추진한 석성면 이오범씨는 "농기구를 이용하여 폐상 하던 작업을 기계로 손쉽게 할 수 있어 인건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됐다"며 "농촌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부여군의 양송이 생산은 6,272톤으로 전국의 57%(전국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여양송이의 브랜드화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확보에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여=이정복기자

서천군 주민과 함께 구)장항제련소 오염부지 활용방안 찾는다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6일 장항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학교 정철모 교수의 주제발표와 한남대 정순오 교수의 주제로 '구)장항제련소 토지매입구역(브라운 필드) 활용방안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지매입구역 토지이용계획 마련'과 연계해 토지정화 사업이 완료된 후 조성되는 1.587km²의 부지가 지역발전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천군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흠 장항읍이장협의회장 등 장항읍 주민대표들과 이명우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최정석 중부대학교 도시행정학

과 교수, 오용준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철모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오염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은 별도의 구상보다는 기존 장항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계획과 발전정책, 서천군 관광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하며 창의적인 생태환경관리 체험학습장 등으로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민선6기 서천군은 주민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상황식 군정 의사결정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항읍은 대한민국 산업화시대의 상징으로,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김태선기자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4개 마을 선정

외산면 민수2리 · 잠암면 점성1리 · 석성면 봉정1리 · 남면 송암2리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개마을이 선정되어 지난 16일까지 각 마을 현판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 발생의 주원인인 농 · 산촌 지역의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2014년부터 산림청의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에 외산면 민수2리, 잠암면 점성1리, 석성면 봉정1리, 남면 송암2리가 선정됐으며, 각 마을은 산불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산폐기물 발생시 관계기관의 협



노박래 군 주민들의 투철한 산불예방 정신과 내 고장의 산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해져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이 지정된 것"이라며, "앞으

로 군에서도 단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정복기자

특정

예술무대 버들마당음악회



구분영 천안시장= 18일 오전 10시 온조대왕 송모체에 참석하고 오후 6시 30분 시청버들마당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예술무대 버들마당음악회'에 참석.

휴가실업지부 위생교육



황명선 논산시장= 18일 오후 2시 견양대 콘서트홀에서 개최되는 논산시 외식업지부 및 휴가실업지부 위생교육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 제막식



최홍묵 계룡시장= 18일 오후 12시 광석1리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사랑의 국수봉사 행사 참석, 오후 3시 신도안 계룡대 주추석사에서 열리는 독립운동사적지 표지판제막식 참석.

한마음 민속체육대회



노박래 서천군수= 18일 오전 10시 비인중학교에서 열리는 제26회 비인면민 한마음 민속체육대회 참석하고 오후 2시 30분 문예의전당에서 열리는 모범(향토)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교육에 참석.

위촉식



이용우 부여군수= 18일 오후 1시50분 브리핑실에서 개최하는 부여 100인 선정식사위위 위촉식에 참석

어린이집 연합체육대회



김혜정 계룡시장= 18일 오전 10시 계룡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어린이집 연합 체육대회'에 참석

논산시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순항'

로컬푸드 공급으로 안전한 급식 실현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지역농가의 학교급식 참여 농가 확대 홍보 및 식재료의 안정적공급을 위해 17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학교급식 홍보 및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산자,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기관 · 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하고 질 좋은 논산시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안정적인 관료 확보를 통한 학교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임경수 논산시 사회경제정보좌관의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특강과 김민완주군로컬푸드협동조합 생산자로서의 학교급식 생산사례 발표'에 이어 최관성 논산시 농정과장의 논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계획 및 생산자 참여요령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임경수 논산시 사회경제정보좌관은 "학교급식을 통해 로컬푸드의 생산과 소비기반을 마련하고, 논산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는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역농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계약재배에 의한 농산물 공급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내 식재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해 급식현장에 맞는 생산 · 공급시스템을 구축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정

유통기본용역 최종보고회



오시덕 공주시장= 18일 오전 8시 20분 상황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 오전 10시 30분 유통 4통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 오후 4시 한우브랜드개발 및 유통기본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재인선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



김동일 보령시장= 18일 오전 10시 보령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박람회, 오후 2시 인천문화경기장에서 열리는 재인선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한국인대상 시상식 참석.

서산시민체육대회 전0례



이완섭 서산시장= 18일 오후 2시 인천 문화구장에서 열리는 재인선도민회 '충남 농사랑의 날' 행사에 참석, 오후 6시 서산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1회 서산시민체육대회 전야제 참석.

고향의강정비 사업장 현장행정



박동철 공주시장= 18일 오후 2시 금산천 고향의강 정비 사업장에 대한 현장행정 실시.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조병백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5 방과후학교 박람회 참석.

향토산업육성사업 흑삼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국회서 열려

“인삼산업 세계화 적극 지원”

금산흑삼의 6차산업화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인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금산군, 금산흑삼특성화사업단,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가 주관한 '향토산업육성사업 흑삼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박동철 금산군수, 민병훈 금산흑삼특성화사업단장(배재대), 박종대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장, 고태훈 금산흑삼(주)대표 등 인삼재배 농업인, 기업인, 인삼제품 메이저 유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삼 6차산업화 방안, 인삼 가공 식품의 유통 및 마케팅 전략, 흑삼연구 등 많은 주제들이 발표됐으며 금산인삼 및 흑삼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인제 국회의원은 흑삼산업의

적극적 홍보 마케팅을 위해 세미나와 흑삼제품 품평회를 여는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삼6차산업화를 통해 인삼산업 세계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동철 금산군수와 금산흑삼특성화사업단 민병훈 단장도 상호협력력을 통해 체계적인 흑삼의 연구와 마케팅을 추진 금산인삼 6차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삼 농촌산업과장은 흑삼제품 품평회에 참가한 유통업체 관계자들에게 제품 판매를 독려하고 세미나 특강을 통해 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인삼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사업 중 '금산 GAP 인증 인삼의 흑삼 특성화 사

업'은 전국 평가 우수사례가 될 만큼 모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배재대학교 금산흑삼특성화사업단 및 금산군내 5개 기업을 중심으로 '금흑' 브랜드(흑삼가공품 공동브랜드) 개발 및 흑삼제조가공시설을 구축했다. 흑삼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두 곳에 금흑매장을 개설했으며 한화갤러리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상생협약으로 면세점 입점 발판도 닦았다. 박동철 군수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10여억 원을 투입해 흑삼의 식품공전 및 개별인정형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시 새로운 금산흑삼제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시장 선점 등 세계인삼산업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산=김남규 기자

내년도 주민 주도 농산어촌개발 앞장

보령시, 5개 사업 공모 선정... 국비 54억 원 확보

보령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실시한 '2016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 공모사업' 결과 5개 사업에 선정돼 5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사업은 △오천 중심지활성화 사업 60억 원 △음원리, 성주3리, 유곡1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15억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8천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지방비 30%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76억 원 규모이다. 오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오감으로 살맛나는 오천, 지속가능한 농촌중심지'라는 주제로 활기찬 옛 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 재현거리와 아름다운 향기로 꾸러 소독기반을 창출하는 마을로 변화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성과는 민선6기 역점과제인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부자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농 혁신과 농산어촌의 미래 성장 동력인 6차 산업화를 통해 농산어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시는 사업 공모를 위해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인식 변화 교육을 시작으로 마을 주민과 추진위원회, 전문가, 행정이 협력해 추진하는 중심지 단위 현장포럼과 워크숍, 벤치마킹, 지역발전협의회 등

의 과정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공모사업에 따른 국비확보로 지속가능한 농산어촌민들의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정기구를 조속히 선정하고 여건을 조성하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중심지 단위 주민참여 현장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부자 농어촌 도시로 나아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2017년도에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9월부터 주민 대상 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8개 지구 168억 원 규모의 세부사업을 확정해 용역을 발주했다. 보령=김태선기자

우리/동네

추석맞이 농어촌도로 조기준공개통박차

공주시 귀성객 교통편의 도모

공주시시장 오시덕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고향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공사중인 농어촌도로를 추석 이전에 준공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좁은 도로폭을 확장하기 위해 시공중인 우성면 귀산리 일원의 반촌도로공사의 경우 연장 280m 구간을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를 이번 주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인면 운암리에 시행중인 가변차로 설치공사와 이인면 산외리 산외도로 확장공사도 명절 이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건설과 도로계획팀 오재경 팀장은 "관내에서 진행중인 공사를 조기에 준공하여 명절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대금지급도 즉시 실시하는 등 명절에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귀산리 이장은 "확장공사가 조기에 준공되어 명절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도로를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공주=정상범기자

서산시 가뭄 극복 '총력'

3700여곳 참여, 하루 물23% 절약 적극 유도

극심한 가뭄으로 보령댐 용수공급 감축이 불가피한 가운데 서산시가 범시민 절수운동 전개 등 단계별 극복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전날 25.1%를 보인 보령댐 저수율이 연일 급격히 줄고 있어 다음달 5일에는 '가뭄 심각 2단계'에 진입하고 생활용수 공급 제한도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장, k-water 서산권관리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완섭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단계별 대응에 돌입했다. 시는 우선 심각 2단계에 들어서면 1일 1만2000톤의 물을 절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사전 극복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는 시 관내 2만1000곳에 공급되는 1일 물 사용량이 5만 2000톤인 점을 감안할 때 23%의 물을 절약해야 하는 수치다. 이를 위해 시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과 샤워장(1일 86톤 사용)에 대한 임시휴관 조치를 비롯해 공공기관, 학교, 아파트 단지 등에 사용량 절감요를 통보하고 물 절약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내 53개 학교급 물 절약 실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 추진하고, 목욕탕과 집단급식소 등 3700여곳의 위생업소에 대한 물 절약 계도활동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3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86개 공동주택(아파트포함) 마다 자체 단수시간 운영과 절수밸브 조절 운동, 양변기 벽돌(물병)넣기 등에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용수 제한급수에 대비 비상급수시설 11개소(1일 2,640㎥)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농사용 대형관정(131개)을 생활용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물에 대한 소중함을 함께 인식하고 물 절약 운동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가뭄으로 인한 피해 극복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보고된 대책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K-water와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부서장 책임 하에 실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부서별 가뭄극복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완섭 시장 단회본 발표회와 전단지 및 유인물 배포, 현수막 설치, 휴대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절수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산=김정현기자

금산군 주거환경 쾌적성 높아진다

돼지·개·닭 등 전체면적 86% 제한구역으로 묶어

토지이용규제 부당화를 위한 금산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금산군은 부분별한 가축 사육으로 인한 악취나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9월 초 공포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지난 9월 8일자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도지역·지구 등재작업을 완료했다. 지형도면 고시 결과를 보면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의 경우 금산군 전체면적 577.36km² 중 86.39%인 498.8km²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수변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 전부제 한구역과 전부제한구역 경계 및 주거밀집지역(5호가구 이상) 경계 등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뉘며, 일부제한구역은 거리에 따라 사육할 수 있는 축종별 기수를 제한하고 있다.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가축사육 시설 부지경계까지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한·육우는 200m 이내, ▲말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300m 이내, ▲젓소는 400m 이내, ▲개, 돼지, 닭, 오리, 메추리는 1,200m 이내로 제한한다. 한편, 이번에 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은 군 환경자원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등재돼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ku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금산=김남규기자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가공식품·주류·건강기능식품·원규류 등 25일까지 실시

서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7일부터 25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대형 할인마트를 위주로 한가위에 맞추어 다양한 게 출시·판매될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원규류 등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1차 식품의 표준규격품 표시가 미흡한 사례가 높을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점검결과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은 전문가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출시·판매될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 원규류 등 과대포장이 예상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서산=김정현기자

대전투데이 Daejeon Today 광고문의 (042)538-3030



보령시, 추석 명절 주정차 단속 한시적 완화 운영 보령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9일부터 내달 4일까지 그동안 실시해 오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혼잡한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와 시민,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게 됐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25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서산테크노밸리 잔여지 매각 공고. 1. 매각대상의 표시 (단위:㎡, %) 2. 매각방법: 연역은 수의계약(각 지번별 개별 매각으로 동일인여 2개 이상 지번에 대한 중복 계약도 가능) 3. 계약보증금 및 대금 납부 방법 4. 기타 사항

TV 프로그램

*문의 ▶ KBS 470-7320 ▶ MBC 220-2348-9 ▶ TJB 281-1101 ▶ SBS (02)369-1090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7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TJB/SBS, CMB, EBS), Time, Program Name. Lists various news, entertainment, and educational programs.

TV: 하이라이트

▲어머님은 내머느리 (SBS오전8시30분)



봉주는 의사에게 경숙이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경숙은 봉주에게 상상임신이었다며 눈물로 고백하고, 이를 안쓰럽게 여긴 봉주는 경숙을 위로한다. 한편, 양희장은 상태에게 친구들로 호적을 올리고 싶다 제안하는데...

▲별이 빛나는 빛나리 (KBS2 오전9시)

정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숙을 찾아가지만 무시당하고, 국립집에서 일하게 된 봉선은 잘못된 손님들로 인해 곤경에 처한다. 종현은 봉하에게 줄

케이블 영화

▲의형제 (18일 CGV 오후 2시20분)

의리와 의심 사이 이놈을 믿어도 될까? 6년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의문의 총격전. 그곳에서 처음 만난 두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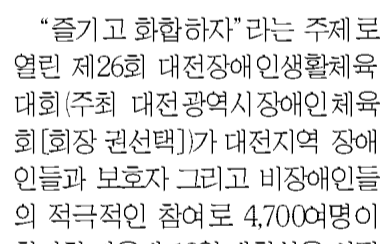
국정원 요원 한규와 남파공작원 지원. 작전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한규는 국정원에서 파면당하고, 지원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북에서 버림 받는다.

그리고, 6년 후,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게 되는 데.

적 인 줄만 알았던 두 남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로서 남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에게 6년 전 그날처럼 북으로 부터 지령이 내려 오게 되고 한규와 지원은 인생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제26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료'



"즐거고 화합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제26회 대전장애인생활체육대회(주최 대전광역시 장애인체육회[회장 권선택])가 대전지역 장애인들과 보호자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4,7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17일 디스크골프를 마지막으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10일 개최식과 어울림놀이문화축제에서는 3,700여명이 참가하여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함께하는 어울림행사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옛날 학교 운동회의 향수를 느끼는 뜻 깊은 이벤트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또한, 떡메치기와 팝콘튀기기 등 각 종 참가 이벤트는 준비된 물량이 부족할 만큼 참여도가 좋았다. 11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14종목의 생활체육경기에서는 장애인과 장애인체육회 언론의 홍보 등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대회 개최 의의를 더한 뜻 깊은 대회였다.



온양한울중, 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대회 금상 수상 지난12월, 충남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진행된 '2015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창작댄스 대회'에서 온양한울중학교 창작댄스동아리인 '제이제이'가 금상을 수상했다. 충남도내 9개 학교가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는 각 학교별 다양한 팀들이 출전하여 재능을 뽐냈다. 온양한울중학교 창작댄스팀 제이제이는 학교폭력과 입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는 인무를 구성해 지난 4월 부터 9월까지 다섯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한 가운데 충남대표급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다.

신발을 고르기 위해 모란에게 도움을 청하고, 봉하 는 길에서 종현을 발견하지만 만나지 말라는 봉선의 말로 인해 주저한다. 한편, 사라진 디자인 공책의 행방을 찾던 미순은 애숙이 가져갔음을 직감하고 애숙의 양장점으로 가는데...

▲이브의 사랑 (MBC 오전7시50분)



현수는 세나에게 우주가 강민의 아이가 맞느냐고 물어보는데 허필 화경이 나타난다. 송아는 아버지의 죽음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구희장은 이 말을 목심한다. 세나는 강민에게서 여자 친구 냄새가 난다며 한 본부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는데...

▲더 코어 (19일 채널CGV 오후 7시20분)

미국 정부에선 인공 지진으로 적을 공격하는 비밀 병기 테스티니(D-E-S-T-I-N-Y)를 개발한다. 그로 인해 지구 핵, 코어(CORE)의 화전이 멈추면서 지구엔 갖가지기상이변이 발생. 재난이 속출한다. NASA측은 대학에서 지구 물리학

을 가르치는 조슈아 카스박사(이론)에 에크하르트 분에게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고 박사는 이론 상태라면 1년 안에 지구가 전멸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류가 살수 있는 방법은 화성 크기의 지구 핵을 다시 회전 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6년 후,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의 신분을 속이고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게 되는 데.

적 인 줄만 알았던 두 남자.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로서 남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지원에게 6년 전 그날처럼 북으로 부터 지령이 내려 오게 되고 한규와 지원은 인생을 건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된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챔버

시리즈3 "현을 위한 세레나데 II"

대전시립교향악단(교향악단이 오는 9월 24일 오후 7시 30분 대전 예술의전당 앙상블홀에서 챔버 시리즈 3 <현을 위한 세레나데 II>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에서 객원리더로 초청된 바이올리니스트 에바 스테헤만은 "지휘자 없이 실내악단을 이끄는 것은 연주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친밀한 교감, 그와 동시에 유연성이 함께 요구되기에 음악적으로 도전적이며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작업"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번 무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고전 작곡가 멘델스존과 베토벤, 그리고 영국 작곡가 엘가와 홀스트의 곡들을 통해 교향악단 연주자들과 또 관객들과 특별한 음악적 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대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울타리, 재능 나눔 봉사 실시 지난 17~18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마당에서 열리고 있는 2015 청소년나눔 한마당에 참여해 대전 시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복지 분야 전문 직업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에 대한 브로쇼어를 만들어 직업 체험토록했다.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자율정비 캠페인 전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6일 응봉정거리 일원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및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홍보캠페인을 전개했다.



중앙식품 박병두 사장, 공천김 500상자 전달 중앙식품 박병두 사장은 추석명절 불우이웃에 사용해 달라며 흥성군에 공천김 500상자를 17일 전달했다.



N농협 단정시지부, 불우이웃 도배봉사 펼쳐 지난 17일 관내 농협 임직원과 함께 정미면 사관리 어려운 가정을 찾아 위로하고 도배·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계룡산국립공원 '수통골 네이처센터' 개관 지난 16일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생태 체험시설인 '수통골네이처센터'를 개관했다고 밝혔다.



부여군내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사업 실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관형)에서 2015년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역량강화교육' '사랑방 토크'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 해양레저 문화 확산에 공로 인정 받아

최미순 교수 해양수산부 장관상 수상

해양수산부 및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가 주관하는 'KIMA Awards 2015'로 지난 17일 해양레저 산업 발전 및 해양레저 문화 확산에 공로를 인정받아 학술교육 부문에 세한대학교 최미순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학술교육부문 수상자인 최미순 교수는 2004년부터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SRL) 해양레저특성화사업단을 중심으로 다수의 융복합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수도권에 해양레저산업 황무지를 개척하면서 연관사업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

또한 최 교수는 세한대학교 해양레저학과를 개설해 현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남 환황해권역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 및 워크숍'에서 충남 해양레저·관광 발전을 위한 해양레저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충남 당진 외곽항 '거점형 마리나항만' 육성 개발 연구를 통해 환황해권 해양레저 및 마리나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이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이 상은 해양레저분야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에 공이 큰 기업 및 유공자를 포상해 우수사례 발굴 전파 및 안전한 해양레저 문화 확산과 산업 육성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국제협력부문, 산업육성부문, 학술교육부문의 3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정했다.

장관상을 수상한 최미순 교수는 "앞으로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더 많은 기여와 해양레저 및 마리나 산업을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최근수기자

한국폴리텍대학대전캠퍼스, 대전·세종·충남권 고교 교사참석

'2016학년도 입학설명회' 가져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학장 서규석)는 16일 제1공학관 강당에서 2016학년도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입시설명회에는 대전·세종·충남권 33개 고교 교사 60여명과 서규석 학장 등 대학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입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3학년 부장 선생님과 진로진학 선생님들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높은 취업률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입학이 곧 취업'이라는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의 대표 이미지를 부각하고, 우수한 대학 평가로 지역에서 인정

받는 교육 기관임을 강조함으로써, 기술·기능인의 면모를 갖추고 취업의지가 강한 우수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단순하고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탈피하여 평소 우리 대학 및 입시와 관련하여 궁금했던 사항에 개별적이고 상세하게 응대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날 서규석 학장은 "우리 대학은 점차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의 협조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특징점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복기자

은양3동 - 아산축산농협, 관내 소외된 이웃에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품' 전달

아산시 은양3동 통장협의회(협의회장 송철승)와 아산축산농협(조합장 천해수)은 추석을 맞아 지난 16일 관내 소외된 이웃에 사랑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후원품은 통장협의회에서 150만원 상당의 쌀(10kg)과 휴지를 후원했으며 아산축산농협은 임직원들의 모금 및 자체 기금으로 마련한 150만원 상당의 곡국 30box(1box 5팩)과 우유 30box(1box 24팩)를 후원했다.

특히 후원품을 전달받은 30가구

는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각 마을에서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로 구성돼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송철승 통장협의회장은 "지난 1월 복지통장으로 위촉이 되고 난 후 처음으로 각 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품을 전달하게 되어 보람된다. 복지통장으로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산=리량주기자



태안 천리포수목원, 한가위 다채로운 행사

단·장기 체류형 탐방객 대상... 뜻깊은 추억 선사하기 위해 마련

태안 공약재 단법인 천리포수목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추석 연휴 동안 천리포수목원을 방문하는 단·장기 체류형 탐방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명절에 수목원을 찾은 탐방객들에게 뜻깊은 추억을 선사하기 위하여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밀라가든 일원에서는 솔방울 투호를 비롯하여 옷놀이, 공기놀이, 알까기 등의 셉트 체험장과 포토존이 마련된다.

에코힐링센터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장기 체류형 탐방객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플레이볼을 이용한 전통탈구미기 공예체험을 하고, 오후 3시에는 태안 햅쌀을 이용한 삼색경단 만들기도 진행한다. 체험장에서는 즉석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무료로 인화해 주는 이벤트도 운영된다.

에코힐링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오는 25일까지 전화(041-672-9985)나 수목원 홈페이지(www.chollipo.org) 등을 통해 접수받아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천리포수목원은 추석연휴 동안 정상운영된다. 태안=김정환기자

대전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연찬회

"제2새마을운동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앞장"



대전광역시 새마을회(회장 한재득)는 지난 16일~17일까지 동영읍 호리조트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한현택 동구청장, 김동진 동영시장, 시․구 회장단 5개 구 회원 210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전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상길 총회 인성교육중앙연구원 전임교수의 '동물의 효 이야기' 주제의 특강이 이어 감대 대전시새마을회 사무

처장의 "읍면동공동체 및 구회관 건립" 주제의 특강과 구회회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분임토의 및 결과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한재득 대전시새마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2새마을운동으로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대전건설에 새마을지도자가 앞장서고 새마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해 읍면동공동체 건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송배기자

● 동정 ●●●

중국 순방



국유 순방.

청소년 댄스 한마당



2015 청소년 댄스 한마당 참석.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와 상인 사기진작을 위하여 18일 대전중앙시장에서 중기청 직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실시.

한밭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업무협약 체결



한밭대학교(총장 송하영)와 대전·충남지방병무청(청장 이성수)은 16일 오후 4시 한밭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여기고 원활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하며 정의로운 신(新)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한밭대 학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병무행정 서비스 지원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업무협조 ▲기관 매체를 활용한 상호 홍보 지원 등 상호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정복기자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이웃사랑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마사회 천안지사(지사장·양진규)는 17일 천안시 성정동에 위치한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정복)을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소외이웃들을 위해서 쌀 30포, 지역특산품 오미자원액 72점을 전달했다. 김정환기자

기고



백낙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곧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이다.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 도읍안의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나누어 음력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두레 길잡

추석에 거는 기대

을 하고 추석날 심사를 해서 진편이 이긴 편에 술과 음식을 내고 춤과 노래를 하며 즐겁게 지냈다고 전한다. 이제는 추석 풍습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옛부터 추석 때는 객지로 나간 자식들이 고향에서 한데 모여 달리기와 줄다리기, 씨름을 하는 등 체육대회가 열리곤 했는데 요즘은 이러한 풍습이 사라진지 오래다. 뜰나면 가족과 함께 관광이나 쇼핑을 즐기고, 식사도 외식을 많이 한다. 추석 전날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떡집에서 사다 차레를 지낸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은 제수용품과 선물을 사느라 분주하고 상인들은 추석 대목경기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부에서는 안전자금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특산물 판매와 관광홍보에 열심이다. 필자도 추석을 맞아 우리 고장 보령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령은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지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그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무창포항에서 전어와 대하축제가 열린다. 가을을 알리는 큰 새우 대하와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전어는 여름철 무더위에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대천항과 무창포항 등에는 꽃게와 우럭, 광어, 키조개 등 해산물이 풍부하며 가공품인 맛김과 오징어 등 건어물도 풍부하다. 또한, 맛 좋기로 소문난 남포도의 시현포도가 한창이고 폐광에서 나오는 냉풍을 이용한 양송이버섯, 보

령을 대표하는 머드미 쌀 등이 일품이다. 그리고 서해안 최고의 4계절 휴양지인 대천해수욕장에서는 타워 높이 52m에서 시속 80km로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액이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석탄박물관과 보령 에너지월드도 볼만하다. 이뿐만 아니라, 서해안에서 가장 높은 오서산은 맑고 깨끗한 명대계곡과 산 정상상의 억새밭이 장관이다. 울창한 천연림을 따라 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바다와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제 곧 추석명절이 다가온다. 올 추석선물은 실속 있는 우리고장 보령의 다양한 특산품을 권하고 싶다 그리고, 보령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보령에 오셔서 즐기고 맛보며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명절이 되길 기대해 본다.

기고



이홍주
충남서천경찰서 경무계장

추석을 얼마 앞둔 지금도 어디선가 어두운 음식에서 불량식품을 제

당신의 양심과 맞바꾼 '불량식품'

조하여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제조업자들이 여전히 사라지고 있지 않다. 불법 제조업자들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단지 돈에 눈이 멀어 자신의 양심을 팔아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우리사회를 불량사회로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깨지거나 분병이 묻은 계란은 세균감염과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전량 폐기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량 계란과 정상계란을 혼합해 액상계란으로 만들어 추석 대목을 노리고

제과업체에 납입하여 빵과 과자의 원료로 사용하고 발암물질인 벤젠이 첨가된 가가 참기름 만들어 납품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불량식품들이 멈추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부정식품 사범은 최근 4년 동안 해마다 2만명 인력이 적발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처럼 4대악 척결과제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강화에도 불구하고 바투기라도 한 듯 점점 더 다변화된 불법

과 편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안전사회는 멀어지고 불량 사회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이다. 이런 식품 범죄가 생체형 범죄라는 온정주의적 생각을 탈피하여 국가를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위해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와 계좌추적 등 철저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 불량식품은 곧 당신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지름길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국의 노후 산업단지이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1만 7000여 중소기업이 밀집한 반월시화단지만 하더라도 대학 캠퍼스가 이전하여 젊은 대학생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근로자와 워킹맘을 위한 오피스텔과 어린이집은 물론 특급 호텔까지 들어섰다. 도금, 표면처리 공장도 청정 폐수처리시설을 완비한 쾌적한 작업장으로 변신했다. 이제 산업단지는 단순한 생산기능을 넘어 젊은 인재들을 위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공장도 진화하고 있다. 과거 수작업에 의존하던 낙후된 작업환경이 제조 전 과정에 ICT를 융합하여 생산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공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금년까지 1,200개 공장이 스마트공장으로 변신할 예정인데, 회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스마트공장 도입 이후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인상적이었다. 바이오혁신산단과 스마트공장의 도입으로 지역 일자리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리잡은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각 지역의 젊은이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갖추었다. 앞서 소개한 혁신산단, 스마트공장 확산과 함께 울산 친환경 전기 융합산업 육성사업, 충북 비이

역 일자리 창출이었다. 박근혜 정부 3년치를 맞아 하나둘 결실을 맺고 있는 지역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와 동시에 전국 11개 지역에서는 일자리 박람회도 개최되어 가까운 지역에서 바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지역희망박람회를 계기로 사회의 모든 부문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하겠다. 혼신의 노력으로 산업단지를 혁신하고 공장을 스마트화하고 지역특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어야 시너지가 생겨 경제 활력이 되찾고 청년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는 노사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지역의 청년들이 포기 아닌 꿈과 희망을 논할 때 진정한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사설

공무원 금품·향응 생각도 마라

앞으로는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무조건 퇴출된다니 몸조심에 보다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약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과 함께 공직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이라도 능동적으로 또는 갈취형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을 받으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깎인다. 또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4분의 1이 깎인다. 기존에는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근거해 징계 양정을 결정해야 했다.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징직-감봉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제 더이상 공무원들은 민원인들로부터 어떠한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아서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판가에서 더이상 부조리가 보이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노후 준비 미흡 원인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준비가 미흡한 주된 원인으로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과도한 교육비와 결혼비용이 꼽혔다. 보험연구원 발표된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평가해 보라는 질문에 4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연구원이 설문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5월 18일부터 (총 17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연구원은 보험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자 매년 이 조사를 하고 있다. 노후 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지난해 조사보다 3.9%포인트 상승했다.

학력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이 나와 중졸이하인 응답자 중에는 53.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필요한 노후 소득 대비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됐느냐는 물음엔 필요 노후소득의 50~70%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많았고 30~50% 미만(27.3%)이 그 뒤를 따랐다. 노후 준비를 잘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 등 양육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41.3%로 가장 높았다. '불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 부족'(19.0%),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 부족'(11.2%)이 그 뒤를 이었다. 은퇴 이후 삶이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비와 결혼비용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패턴을 반복해선 안 된다. 지금부터라도 절제된 비용부자로 노후의 안정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소사

2004년 · '소라이로프'로 2004년 10월 10일	1902년 · 서해안고속도로 10월 10일
2004년 · '한글'로 10월 10일	1901년 · 김구, 소극적 정권(당시)에 대한 비판을 보이기 위한 세계계약안 발표
2007년 ·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국유지, 남북 통시 기법	1901년 · 프랑스의 '시몽'로 10월 10일
2000년 · '경의선 복원공사' 기법	1972년 · 한국-대만 사이, 국공수립
1999년 · '한반도 평화'로 10월 10일	1972년 · 동해선 국유지 기법
1996년 · '한반도 평화'로 10월 10일	1967년 · 소련 북극에서 대기권 핵실험
1994년 · '한반도 평화'로 10월 10일	1962년 · 17개 유엔회원국, 100개 대표 식년
1990년 · 국제올림픽위원회, 1990년 올림픽 미국 카를로스 로사게기로 결정	1959년 · 호르시호프 유엔총회서 10월 10일
1980년 · 경계 무장 해방 시장	1950년 · 영국 프랑스 지역 국수(부활) 실패
1965년 · 제4차 남북경제회담 개최	1957년 · 고인 다임 달리기 대회
1902년 · '한반도 평화'로 10월 10일	

시의 향기



이채 작

중년의 나이에 어머니가 그리웁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구름 위에 계신다면
사계절 비가 되어
하늘까지 닿는 무지개다리를 놓겠습니다

밤낮으로 노를 저어 그 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그 아침의 햇살 같고
그 햇살의 품일 같고
그 풀잎의 이슬 같은
은화하고도 인자하시던 어머니

당신은 힘들어도
한마디 내색조차 없으시던
부모 노릇이
어찌하여 제게는 이다지도 힘이 드는 겁니
까

가슴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싶을 때면
어린 새가 날고
철부지 아이가 동화책을 읽는
그 숲에서, 아늑한 그 숲에서
기슴 터지도록 그리운 당신을 불러봅니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E-mail : d-mail@harmail.net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십시오.

외부 필진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젊은생각 · 비르신문

2006년 5월 17일 창간

발행 · 편집인 김현정	회장 김성구	편집국장 한대수	논설위원 조정호
전화안내 042538-3030	기사제보 042538-1601	팩스번호 042538-2211	
구독배달안내 042538-1602	광고신청안내 042538-1603	구독료 월 1만3000원 1부 700원	
서울지사 :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동 63-2	☎ 026406-5921	팩스 02392-514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효협동조합

하늘일

- 요문화 진흥활동 후원
- 요 관련물품, 생산, 구매, 판매활동
- 짝거래장터 운영
- 조합원 요복지사업
- 요선도용문, 아이누리 마을기업 운영추진
- 무상급식소 운영
- 요자, 요부발굴 지원
- ◆ 공주교육대학교 학교기업
특약점운영 (장수판매)

마시고 바르는
장에 좋고 피부에 좋은

장수

漿水

JANGSOO

살아있는 자연발효제품입니다.
꿀이지 않아 아로미생물이

GABA
물질함유

X 추석맞이 특별 할인상품

- 장수음료 1개월분(30팩)1박스 6만원
- 한산소곡주
- 태양초고추 최상품 1근 11,000원
- 모시떡24알 9,000원, 송편25알 10,000원
- 귀리1kg 3,000원
- 각종장류(간장, 고추장, 된장, 짬장, 박장)
- 굴비,간고등어
- 특별영양식,국수가루1봉 7,000원
- 김 10,000원, 13,000원, 20,000원
- 외 과일류(견과류)

물품 주문방법

T. 042. 582. 0056
M. 010.6433.7298
010.9403.6848
010.2015.8969

주문품명,수량

주문자 주소 연락처

2~3일 배송

대금입금: 농협 355-0029-1365-23 서성애

후원 : 대전효도회, 한국효행청소년단, 공주교육대학교 학교기업,
용문·아이누리 목요장터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로 134번지 17 (가장동57-1)동명빌딩 301호

다음카페 효협동조합 T : 042.582.0058 F : 042.536.9118